

연구논문

‘숫자’로 읽는 식민지 ‘조선학’

1920~1940년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 역사·문화’ 관련
텍스트 계량 분석

홍정완

연세대학교 글로벌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한국사 전공

goldvalley@naver.com

I. 머리말: 연구 방법과 기사 선별 기준

II. 기사 출현 빈도와 분야별 분포

III. ‘담론 기사’ 분석

IV. ‘스트레이트 기사’ 분석

V. 맺음말

I. 머리말: 연구 방법과 기사 선별 기준

본고는 식민지 조선에서 조선인이 발행한 대표적인 일간 신문인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창간부터 폐간에 이르기까지 전체 기사를 조사하여 ‘조선 역사·문화’ 관련 기사를 선별한 후 이를 양적인 방법에 입각하여 검토함으로써 식민지 ‘조선학’의 전개 양상에서 나타난 특징의 일단에 다가서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각 분과학문을 중심으로 질적 연구에 기초하여 주밀하게 이해되어 왔던 식민지 ‘조선학’에 관한 기존 연구 경향에서 간과되기 쉬운 식민지 ‘조선학’의 전반적인 지적 지형과 그 변화 양상에 대한 다각적 이해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① 1920년부터 1940년까지 발행된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전체 기사를 조사하여 ‘조선 역사·문화’, 즉 조선의 역사, 언어, 문학, 민속, 사상 등을 다룬 기사를 선별하고, ② 전체 기사에서 선별된 기사들의 비율과 그 출현 빈도의 연도별 변화 양상을 파악한 다음, ③ 선별된 기사들의 내용을 ‘분야’(주제)별로 분류하여 그 수치를 바탕으로 선별 기사의 전체적인 구성과 그 시기적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고, ④ 기사들을 작성한 주체, 기사들이 다루고 있는 소재, 그리고 기사(텍스트)의 산출에 활용된 지식 자원(레퍼런스) 등을 추출한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했다. 이는 개별 연구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방대한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본고는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 소속 연구자들이 수년간에 걸쳐 공동 작업을 통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것이다. 이 논문의 내용은 필자의 책임이지만, 논문에서 활용된 수치들은 공동 작업의 소산이며, 거기에 필자의 보정 작업을 더해 작성된 것임을 밝힌다.

*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6A3A01079581).

잘 알려져 있듯이 정보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디지털 정보기술과 데이터 분석 기법을 인문학 연구에 결합하는 디지털 인문학이 각광받고 있다.¹ 대체로 이들 연구는 불특정 대량 코퍼스(corpus, 말뭉치)를 대상으로 기계적인 정보 처리법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지적 통찰을 지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디지털 인문학의 분석 방법을 참고, 활용하여 대량의 디지털화된 코퍼스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특정 주제, 즉 ‘조선 역사·문화’에 관한 텍스트를 선별하는 작업을 통해 ‘한정된 코퍼스’를 구성하고 이를 분석하는 방법에 입각한 것이다. 다시 말해, 좁은 의미의 ‘조선 역사·문화’ 관련 기사를 선별한 후 해당 기사가 실린 매체, 기사의 작성자(author), 발행일 등의 정보를 축으로 해당 기사의 텍스트에서 인물(person), 조직·기관(organization), 레퍼런스(reference), 레퍼런스-저자(ref-author) 등의 정보를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분석한 것이다.

본고에서 지칭하는 ‘조선 역사·문화’ 관련 기사라 함은 조선(한국)의 역사, 언어, 문학, 사상(철학), 민속, 고적, 음악, 미술 등을 다룬 기사를 의미하며, 그에 관한 사건, 운동 등에 관한 기사도 포함한다. 즉, 기사의 소재와 대상으로서 ‘조선 역사·문화’ 관련 기사를 선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당대의 국내외 사건, 정세를 다루거나 그에 관해 논평하는 기사는 대부분 포함되

1 국내의 디지털 인문학의 연구 동향을 소개, 분석한 다음의 연구를 참조. 김바로, 「해외 디지털인문학 동향」, 『인문콘텐츠』 33(2014); 이재연, 「디지털 시대의 인문학에서 디지털 인문학 시대로: 한국문학에서 본 디지털 인문학 연구」, 『역사학보』 240(2018); 정유경, 「디지털 인문학 분야의 국내외의 연구 동향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7-2(2020); 이재연·정유경, 「국문학 내 문학사회학과 멀리서 읽기: 새로운 검열 연구를 위한 길마중」, 『대동문화연구』 111(2020); 정은경, 「디지털 인문학 연구 동향 분석: Digital Humanities 학술대회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5-1(2021); 박경우, 「인문학 연구에서의 디지털 기술 활용 현황 및 적용 방향: 디지털 인문학 동향 분석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200(2022).

지 않으며, 일반적인 의미의 역사, 언어, 문학, 철학, 민속, 음악, 미술 등을 검토한 기사나 타국, 타민족의 역사·문화에 관련된 기사 또한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조선 역사·문화’를 소재로 했더라도 소설, 시(詩), 희곡 등 문예 작품은 제외했으며, ‘조선 역사’ 관련 기사는 1920~1940년 발행된 신문 기사를 분석하는 것이므로 임의적으로 1910년 강제병합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 시기를 다루는 기사로 한정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신문이라는 매체는 사건·사고 등을 전하는 극히 간단한 기사뿐 아니라 상당한 분량의 학술, 논설 기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격의 텍스트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사의 성격 차이를 다양하게 구분하여 계량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했지만, 기사 전체를 단일한 평면에서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갖는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극복하기 위해 기사를 두 개의 층위로 구분했다. 즉, ‘조선 역사·문화’와 관련된 기사 중에서 사건, 사고, 행사 등의 사실을 간단하게 전하는 기사와 ‘조선 역사·문화’에 관한 학술 논고를 비롯하여 그에 관한 지식이나 주의, 주장을 비교적 상술하는 기사로 구분했으며, 본 연구에서는 임의적으로 전자를 ‘스트레이트 기사’, 후자를 ‘담론 기사’라고 지칭했다. 이와 같은 구분이 엄밀한 기준에 입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로 ‘스트레이트 기사’를 기준으로 하고, 그러한 기사로 보기 힘든 경우는 ‘담론 기사’로 분류했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선별한 기사의 텍스트 정보 추출을 위해 데이터 가공 도구(data annotation tool)인 ‘brat’을 활용했다. 선별한 기사의 원문을 모두 ‘brat’에 옮긴 후 텍스트에서 ‘저자(author)’, ‘인물(person)’, ‘조직·기관(organization)’, ‘레퍼런스(reference)’, ‘레퍼런스-저자(ref-author)’ 등 5종의 정보(단어)를 추출(태깅)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이들 텍스트 정보(단어)를 추출(태깅)할 때 하나의 기사에 동일한 정보(단어)가 여러 차례 나타나더라도 1회 출현한 것으로 산정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과정에서 나

타나는 각 항목의 수치들은 해당 항목이 출현한 ‘기사 빈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과 분석 방법을 토대로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 소속 연구자들의 공동 연구인 1920년대 《동아일보》, 《조선일보》에 대한 분석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² 이들 연구는 두 신문의 1920~1929년 기사를 크롤링하여 엑셀에 옮긴 후 여러 연구자들이 수작업으로 전수 조사하여 선별한 ‘조선 역사·문화’ 관련 기사를 토대로 한 것이었다. 이러한 수작업 선별 작업은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1930~1940년에 발행된 두 신문은 1920년대에 비해 전체 기사의 분량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 추정되었기 때문에, 기사 선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계 학습 기반의 자동 분류 기법을 부분적으로 도입했다. 일차적으로 자동 분류를 통해 ‘조선 역사·문화’ 관련 기사 후보군을 추출한 뒤, 추출된 후보군을 수작업으로 검토하는 단계적 접근 방식을 적용했다.³ 자동 분류를 위한 기계학습 훈련 데이터는 1920년대 두 신문의 ‘조선 역사·문화’ 관련 기사의 선별 결과와 함께 1930년대 《동아일보》, 《조선일보》 학예면의 ‘조선 역사·문화’ 관련 기사 목록⁴을 활용했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분류 모델을 생성하여 1930~1940년 두 신문의 ‘조선 역사·문화’ 관련 기사를 자동으로 분류했으

2 홍정완, 「신문으로 읽는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조선 역사·문화’: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조선 역사·문화 관련 텍스트 계량 분석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98(2022); 심희찬, 「1920년대 『동아일보』 조선사 관련 기사 데이터베이스 검토: 문화운동의 역설」, 『동방학지』 198(2022); 김현주, 「『조선일보』에 나타난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역사지식장: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98(2022); 반재유, 「1920년대 신문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문학담론 고찰 -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문학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198(2022).

3 이 연구에서 활용한 1930~1940년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 역사·문화’ 관련 기사의 자동 분류 작업에 대해서는 강범일, 「근대 한국학 텍스트의 개체명 주석 연구: 1920~1930년대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학』 48-1(2025) 참조.

4 이태훈·정용서·채관식(편), 『일제하 ‘조선 역사·문화’ 관련 기사 목록 1』(서울: 선인, 2015).

며, 이후 그 결과를 다시 수작업으로 검토하고 오류를 보정하는 작업을 수차례에 걸쳐 수행함으로써, 최종적인 선별 기사를 확보했다.

이 글에서는 1920~1940년 식민지 시기에 발행된 《동아일보》, 《조선일보》 전체 기사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20년대 분석 결과는 이미 발표되었기 때문에, 1930~1940년을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는 가운데 1920년대와 비교하는 방식을 가미하여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전체 신문기사에서 ‘조선 역사·문화’ 관련 기사가 차지하는 비율, 매체별, 연도별 출현 빈도의 추이, ‘담론 기사’와 ‘스트레이트 기사’의 비율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기사의 내용을 총 13개의 분야로 분류하여 매체별, 연도별로 기사 내용의 구성과 그 변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담론 기사’의 경우, 계량적으로 상위 빈도를 차지했던 ‘저자(author)’의 구성을 매체별, 분야별로 나누어 검토한 후 기사에 등장하는 ‘인물(person)’과 ‘레퍼런스(reference)’에 대한 분석을 통해 ‘조선 역사·문화’에 관한 조선 지식인층의 학술적, 지적 동향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이트 기사’의 경우, 기사 출현 빈도의 매체별, 분야별로 시계열적 추이를 살펴본 후 상위 빈도 분야의 기사들에서 나타난 특징을 검토하려 한다.

II. 기사 출현 빈도와 분야별 분포

〈표1〉은 1920~1940년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전체 기사 수와 조선 역사·문화 관련 기사의 수를 정리한 것이다. 〈표1〉의 수치를 보면, 1920년대 《조선일보》의 전체 기사 수와 ‘조선 역사·문화’ 관련 기사의 수치가 1920년대 두 신문의 ‘조선 역사·문화’ 관련 기사를 분석한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음

표1-1920~1940년 《동아일보》·《조선일보》 ‘조선 역사·문화’ 관련 기사의 수와 비율
(단위: 건, %)

매체 기간	동아일보			조선일보		
	전체 기사 수 (a)	선별 기사 수 (b)	비율 (b/a)	전체 기사 수 (a)	선별 기사 수 (b)	비율 (b/a)
1920~1929	425,857	5,588	1.31	383,842	5,153	1.34
1930~1940	687,228	11,819	1.72	682,834	15,765	2.32
합계	1,113,085	17,407	1.56	1,066,676	20,918	1.96

을 알 수 있다.⁵ 2022년 발표한 해당 선행연구는 2020년 5월 ‘조선 뉴스 라이브러리 100’에서 제공하는 《조선일보》의 디지털화된 기사를 크롤링하여 선별, 분석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조선 뉴스 라이브러리 100’에서 크롤링했던 디지털화된 기사가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조선일보》 기사와 일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여,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기사를 다시 크롤링한 후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 소속 연구자들이 함께 누락된 기사를 재조사했다. <표1>의 내용은 재조사를 통해 보완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표2>는 1920~1940년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전체 기사 수와 선별 기사의 수, 그리고 전체 기사에서 선별 기사의 차지하는 비율을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다. 먼저 두 신문의 전체 기사 수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자.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1920년대 초반 《조선일보》는 여러 문제로 인해 신문 발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1923년 이후 발행이 비교적 안정화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⁶ 1930년 이후 두 신문의 연도별 전체 기사

5 홍정완, 앞의 글(2022), 5쪽.
6 위의 글, 6쪽.

표2-1920~1940년 연도별 ‘조선 역사·문화’ 관련 기사의 수와 비율 (단위: 건, %)

연도 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전체 기사 수 (a)	선별 기사 수 (b)	비율 (b/a)	전체 기사 수 (a)	선별 기사 수 (b)	비율 (b/a)
1920	18,202	166	0.91	11,214	92	0.82
1921	36,133	385	1.07	26,499	253	0.95
1922	42,498	290	0.68	3,222	58	1.80
1923	45,585	459	1.01	44,138	657	1.49
1924	40,433	296	0.73	43,029	329	0.76
1925	51,605	695	1.35	58,125	483	0.83
1926	43,302	973	2.25	50,087	527	1.05
1927	48,926	1,045	2.14	55,422	1,011	1.82
1928	48,550	797	1.64	33,803	487	1.44
1929	50,623	482	0.95	58,303	1,256	2.15
1930	37,832	1,003	2.65	62,510	1,720	2.75
1931	57,688	1,868	3.24	61,418	2,006	3.27
1932	59,657	1,442	2.42	34,133	726	2.13
1933	66,647	1,012	1.52	53,780	1,379	2.56
1934	67,317	1,418	2.11	66,479	1,865	2.81
1935	69,486	1,326	1.91	66,355	1,672	2.52
1936	52,754	1,037	1.97	70,804	1,647	2.33
1937	52,503	625	1.19	75,127	1,396	1.86
1938	87,083	704	0.81	74,637	1,215	1.63
1939	85,156	824	0.97	74,344	1,220	1.64
1940	51,105	560	1.10	43,247	919	2.13
합계	1,113,085	17,407	1.56	1,066,676	20,918	1.96

수를 살펴보면, 《동아일보》는 1930년, 1936년, 1937년에, 그리고 《조선일보》는 1932년에 신문 발행에 문제가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동아일

보》의 경우, 조선총독부에 의해 1930년 4월 15일 무기정간 처분을 받아 9월 1일 정간 해제되었으며, 1936년 8월 27일에도 무기 정간 처분이 되어 이듬해 1937년 6월 2일 정간 해제되었던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선일보》의 경우, 1932년 7월 30일자까지 발행하고 휴간하여 11월 22일자 부터 속간되었던 결과 해당 연도의 전체 기사 수가 그 전후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이었다. 1930~1940년 기간 동안 《동아일보》는 조선총독부의 무기정간 처분으로 인해 《조선일보》에 비해 신문을 발행하지 못한 기간이 비교적 길었지만, 같은 기간 두 신문의 전체 기사 수는 비슷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전체 기사 수에서 차지하는 ‘조선 역사·문화’ 관련 기사의 수와 비율에 대해 살펴보자. 두 신문 모두 1930년대에 들어서 전체 기사 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총독부의 정간 처분 등으로 인한 발행 중지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조선 역사·문화’ 관련 기사의 절대적 수치만으로 ‘조선 역사·문화’에 대한 매체의 관심이나 태도를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기사 수와 비율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서 <표1>과 <표2>의 수치를 살펴보자. 1920~1940년 발행된 《동아일보》의 전체 기사 수는 113만 건을 상회하는 가운데 ‘조선 역사·문화’ 관련 기사는 1만 7,000여 건으로 그 비율이 1.54%였으며, 《조선일보》는 전체 기사 수가 106만여 건에 달하는 가운데 ‘조선 역사·문화 관련’ 기사는 2만여 건으로 그 비율이 1.96%였음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두 신문 공히 1920년대 비해 1930년대에 전체 기사 수와 ‘조선 역사·문화’ 관련 기사 수가 모두 대폭 증가했다. 그러한 가운데 전체 기사에서 해당 기사의 비율 또한 《동아일보》는 1.36%에서 1.72%로, 《조선일보》는 1.34%에서 2.32%로 크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1920년대에는 두 신문의 전체 기사에서 ‘조선 역사·문화’ 관련 기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비슷했으나, 1930~1940년에는 《동아일보》에 비해 《조선일보》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좀 더 상세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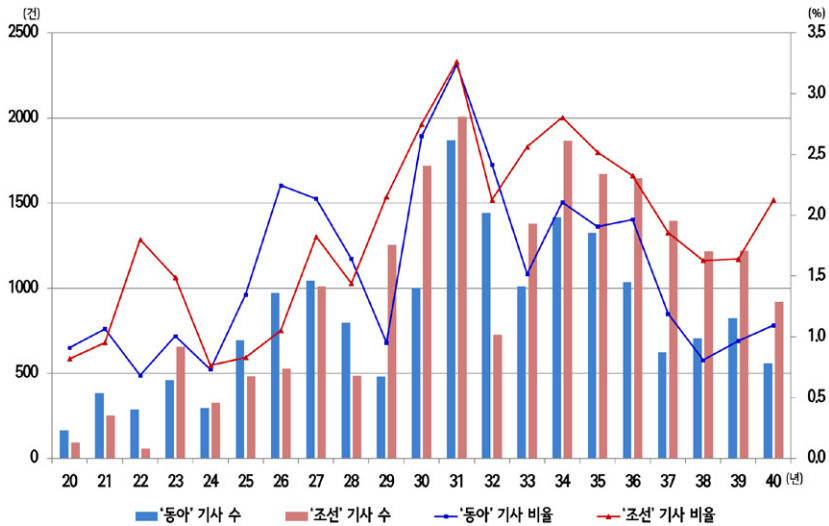


그림1-1920~1940년 연도별 《동아일보》·《조선일보》 '조선 역사·문화' 관련 기사의 수와 비율

분석을 통해 그 구체적인 양상에 대해 살펴보겠지만, 대체로 두 신문 지면은 1920년대에 비해 1930년대에 '조선 역사·문화'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1]은 <표2>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좀 더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1]을 통해 1920년 3월·4월 창간 이후 1940년 8월 두 신문이 함께 폐간될 때까지 두 신문의 '조선 역사·문화' 관련 기사의 양적인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다음의 몇 가지 점이 주목된다.

첫째, 연도에 따른 다소의 편차가 있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두 신문 공히 1920년대에 비해 1930년부터 1936년까지 '조선 역사·문화' 관련 기사의 수와 비율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기존 학계의 연구에서 식민지 '조선학'을 대표한다고 지칭되어 온 '조선학운동'이 전개된 1934~1935년의 기간을 보면, '조선 역사·문화' 관련 기사의 수도 많을 뿐

아니라 기사의 비율도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그럼에도 ‘조선 역사·문화’ 관련 기사의 수와 비율에 있어서도 두 신문 모두 1931년이 그 정점을 이루고 있음이 주목된다. 넷째, 식민지 시기 두 신문의 ‘조선 역사·문화’ 관련 기사의 수와 비율을 동시에 고려할 때 신문에 따라 일정한 편차가 있지만, 1931년을 정점으로 하는 가운데 크게 보아 세 차례의 상대적 고조기가 나타났음을 살펴볼 수 있다. 그 첫 고조기는 1926~1927년이고, 두 번째 고조기는 1930~1931년이며, 세 번째 고조기는 1934~1935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3〉는 1930~1940년 《동아일보》, 《조선일보》에 실린 ‘조선 역사·문화’ 관련 기사를 기사 내용(소재)에 따라 총 13개 ‘분야’로 분류하여 연도별 출현 빈도를 정리한 것이다. 신문 매체는 전문적인 학술지가 아니므로 하나의 기사에 여러 가지 주제가 내포된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단일 분야로 분류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내용의 기사는 다중 중복 분류했고, 그 수치를 〈표3〉의 하단에 표기했다. 예를 들어, 〈표2〉에서 볼 수 있듯이 1930년 《동아일보》의 ‘조선 역사·문화’ 관련 기사의 수는 1,003건인데, 이를 ‘분야’별로 분류한 결과인 〈표3〉을 보면, 중복 분류된 기사의 수가 총 232건(23.1%)이며, 그중에서 2중(221건), 3중(10건), 4중(1건) 분류한 결과에 따라 총 1,247건의 기사로 집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3〉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기사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 연도에 따라 분야별 분포에 일정한 편차가 있지만, 총 13개 분야에 걸쳐 비교적 고르게 출현했다고 할 수는 없으며, 별(*)표와 밑줄로 표시한 5개 분야에 대다수의 기사가 집중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동아일보》의 출현 빈도 상위 5개 분야를 보면, ‘민속’(21.2%), ‘역사’(20.8%), ‘어학’(14.9%), ‘문학’(10.4%), ‘고적’(8.8%)로서 전체 선별 기사의 76.2%를 차지했다. 《조선일보》의 경우, ‘음악’(24.0%), ‘민속’(20.0%), ‘역사’(15.2%), ‘어학’(13.4%), ‘문학’(10.0%)

표3-1930~1940년 《동아일보》·《조선일보》 ‘조선 역사·문화’ 관련 기사의 연도별, 분야별 출현 빈도

(단위: 건, %)

매체 영역	1930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계			합계 비율	
	동아	조선	동아	조선	동아	조선	동아	조선	동아	조선	동아	조선	동아	조선	동아	조선	동아	조선	동아	조선	동아	조선	동아	조선	합계	동아	조선
고적	22	33	182	126	221	17	120	96	154	92	164	183	75	128	51	88	65	66	141	33	37	15	<u>*1,232</u>	877	2,109	<u>8.8</u>	4.8
기행	18	111	172	91	153	10	87	79	142	91	152	104	43	161	75	114	57	55	103	31	36	26	1,038	873	1,911	7.4	4.8
문학	231	72	217	140	139	60	58	193	99	245	142	216	108	225	129	146	117	97	147	224	70	207	<u>*1,457</u>	<u>*1,825</u>	3,282	<u>10.4</u>	<u>10.0</u>
미술	32	3	30	14	16	2	19	10	46	11	21	29	30	24	7	27	4	12	29	21	11	31	245	184	429	1.7	1.0
민속	121	374	457	534	462	297	321	340	250	514	350	404	325	351	156	335	183	193	174	153	170	137	<u>*2,969</u>	<u>*3,632</u>	6,601	<u>21.2</u>	<u>20.0</u>
신간	63	89	113	113	68	41	40	41	48	46	61	41	46	57	22	63	21	44	32	44	9	24	523	603	1,126	3.7	3.3
어학	196	518	429	489	287	122	240	241	333	201	188	207	102	203	75	142	79	102	116	160	47	55	<u>*2,092</u>	<u>*2,440</u>	4,532	<u>14.9</u>	<u>13.4</u>
역사	412	379	340	381	378	93	131	271	394	380	332	332	374	250	90	193	153	167	144	203	170	103	<u>*2,918</u>	<u>*2,752</u>	5,670	<u>20.8</u>	<u>15.2</u>
음악	95	322	134	255	94	143	57	431	61	457	65	449	50	467	75	391	128	605	77	517	46	315	882	<u>*4,352</u>	5,234	6.3	<u>24.0</u>
철학	41	17	26	4	4	0	73	2	19	6	48	23	9	16	28	3	0	8	22	2	2	6	272	87	359	1.9	0.5
총론	6	28	21	18	9	5	14	6	48	26	23	32	4	20	9	32	9	25	5	10	5	10	153	212	365	1.1	1.2
한의학	1	1	4	4	1	1	0	0	9	87	6	3	11	16	4	0	0	0	10	0	5	0	51	112	163	0.4	0.6
기타	9	6	21	8	9	3	3	3	21	4	18	12	39	22	9	15	14	56	11	31	21	52	175	212	387	1.2	1.2
계	1,247	1,953	2,146	2,177	1,841	794	1,163	1,713	1,624	2,160	1,570	2,035	1,216	1,940	730	1,549	830	1,430	1,011	1,429	629	981	14,007	18,161	32,168	100.0	100.0
2중	221	198	240	159	112	66	121	229	162	186	216	321	159	252	103	129	105	130	185	197	69	62	1,693	1,929	3,622	—	—
3중	10	16	19	6	136	1	15	51	22	53	14	21	10	19	1	12	6	29	1	6	0	0	234	214	448	—	—
4중	1	1	0	0	5	0	0	1	0	1	0	0	0	1	0	0	3	9	0	0	0	0	9	13	22	—	—

순으로 전체 선별 기사의 82.6%에 달했다. 두 신문은 공통적으로 민속, 역사, 어학, 문학 분야의 기사가 출현 빈도 상위를 나타내었지만, ‘음악’ 분야의 기사 비율에서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차이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담론 기사’, ‘스트레이트 기사’에 대한 분석에서 다룰 것이다.

이와 같은 두 신문의 1930~1940년 분야별 기사 분포는 1920년대의 그것과 비교할 경우,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1920년대 『동아일보』의 출현 빈도 상위 5개 분야는 ‘민속’(27.2%), ‘역사’(16.6%), ‘어학’(14.4%), ‘고적’(10.6%), ‘기행’(8.2%)으로 전체 선별 기사의 77.1%에 달했고,⁷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20년대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보완된’ 선별 결과에 따르면 ‘역사’(22.1%), ‘민속’(20.2%), ‘어학’(14.7%), ‘문학’(10.2%), ‘음악’(9.4%)로 전체 선별 기사의 76.6%를 차지했다. 1930~1940년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두 신문 공히 출현 빈도 상위 5개 분야에 대다수의 기사가 집중되었다는 점, 그리고 ‘민속’, ‘역사’, ‘어학’ 분야의 기사는 공통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다. 반면, 《동아일보》의 경우에는 1920년대에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했던 ‘고적’과 ‘기행’ 분야의 기사 비율이 1930~1940년에는 감소하는 가운데 ‘문학’ 분야의 기사 비율이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민속’, ‘역사’, ‘어학’, ‘문학’ 분야가 상위 빈도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1920년대와 1930~1940년대의 수치가 유사한 양상을 보였지만, 1920년대에 비해 1930~1940년에 들어서 ‘역사’ 분야의 기사 비율이 대폭 줄어드는 가운데 ‘음악’ 분야의 기사 비율이 현격하게 높아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7 위의 글, 9쪽.

Ⅲ. ‘담론 기사’ 분석

머리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두 신문의 ‘조선 역사·문화’ 관련 기사를 기사의 형식에 따라 ‘담론 기사’와 ‘스트레이트 기사’로 분류하였다. 이 장에서는 ‘담론 기사’로 분류된 기사들에 대해 ‘분야’(내용), ‘저자’, ‘인물’(소재), ‘레퍼런스’(지식자원) 등을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려 한다.

먼저, 1920년부터 1940년까지 두 신문의 ‘조선 역사·문화’ 관련 ‘담론 기사’의 빈도와 전체 기사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추이를 연도별로 검토해 보자. 상대적으로 조선 역사·문화에 관한 학술적, 지적 성격이 높은 기사라 할 담론 기사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앞서 ‘조선 역사·문화’ 관련 전체 기사의 추이에서 나타난 세 차례의 상대적 고조기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표4〉는 두 신문의 ‘조선 역사·문화’ 관련 기사 중에서 연도별 담론 기사의 수와 전체 기사 수에서 담론 기사가 차지하는 비율을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며, [그림2]는 〈표4〉의 내용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표4〉와 [그림2]를 보면, 먼저 1922년 《조선일보》의 전체 기사에서 ‘조선 역사·문화’ 관련 담론 기사의 비율이 매우 높았던 점이 눈에 띈다. 하지만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20년대 초반 《조선일보》의 신문 발행이 안정화되지 않았던 상황으로 인해 전체 기사의 수, ‘담론 기사’의 수 자체가 극히 적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를 차치하고 ‘담론 기사’의 수와 전체 기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전체적인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앞서 스트레이트 기사를 포함한 전체 ‘조선 역사·문화’ 관련 기사의 연도별 추이에서 나타난 세 차례의 상대적 고조기가 매체에 따라 일정한 편차 속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 차례의 상대적 고조기를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자. 먼저, 1926~1927년의 첫 번째 고조기를 보면, 《동아일보》는 ‘담론 기사’의 수와 비율 모두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조선일보》는 ‘담론 기사’의 수와 비율이 《동아일보》에 비해 높지 않지만 그 이전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냈음을 살펴볼

표4-1920~1940년 《동아일보》·《조선일보》 연도별 ‘조선 역사·문화’ 관련 ‘담론 기사’의 수와 비율 (단위: 건, %)

연도 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전체 기사 수(t)	담론 기사 수(d)	비율(d/t)	전체 기사 수(t)	담론 기사 수(d)	비율(d/t)
1920	18,202	96	0.53	11,214	84	1.01
1921	36,133	154	0.43	26,499	170	0.84
1922	42,498	82	0.19	3,222	36	1.46
1923	45,585	149	0.33	44,138	312	0.85
1924	40,433	120	0.30	43,029	57	0.17
1925	51,605	234	0.45	58,125	158	0.56
1926	43,302	646	1.49	50,087	267	1.06
1927	48,926	538	1.10	55,422	401	1.14
1928	48,550	425	0.88	33,803	233	0.84
1929	50,623	167	0.33	58,303	639	1.31
1930	37,832	575	1.52	62,510	639	1.02
1931	57,688	792	1.37	61,418	676	1.10
1932	59,657	637	1.07	34,133	175	0.51
1933	66,647	332	0.50	53,780	416	0.77
1934	67,317	658	0.98	66,479	801	1.20
1935	69,486	599	0.86	66,355	622	0.94
1936	52,754	520	0.99	70,804	606	0.86
1937	52,503	254	0.48	75,127	516	0.69
1938	87,083	304	0.35	74,637	369	0.49
1939	85,156	396	0.47	74,344	405	0.54
1940	51,105	298	0.58	43,247	406	0.94
합계	1,113,085	7,976	0.72	1,066,676	7,988	0.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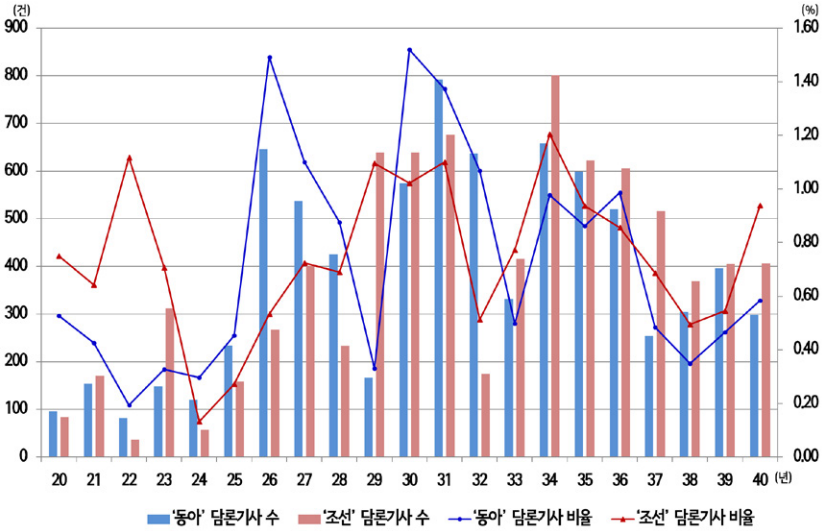


그림2-1920~4190년 연도별 《동아일보》·《조선일보》 ‘조선 역사·문화’ 관련 ‘담론 기사’의 수와 비율

수 있다. 두 번째 고조기의 경우, 《조선일보》는 1929~1931년에 걸쳐 나타났다고 할 수 있으며, ‘담론 기사’의 수와 비율 모두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고, 《동아일보》는 1930~1932년의 기간으로 ‘담론 기사’의 수는 1931년, 비율은 1930년에 정점을 이루며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고조기는 1934~1935년 ‘조선학운동’이 전개된 시기인데, 《동아일보》의 경우 두 번째 고조기에 비해 기사의 수와 비율에서 모두 다소 낮은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조선일보》는 ‘담론 기사’의 수와 비율에서 1934년에 정점을 나타내었으나, 1929~1931년의 두 번째 고조기와 비교할 때 1934~1935년의 세 번째 고조기가 양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보기 어렵다. 따라서 ‘조선학운동’이 전개되었던 시기의 ‘조선학’에 관한 질적인 평가와는 별개로 담론 기사의 양적인 측면에서 볼 때 두 번째 상대적 고조기와 비교해서 ‘조선학운

표5-1920~1940년 《동아일보》·《조선일보》 ‘조선 역사·문화’ 관련 ‘답론 기사’의
수와 비율 (단위: 건, %)

연도 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답론 기사 수(a)	선별 기사 수(b)	비율(b/a)	답론 기사 수(a)	선별 기사 수(b)	비율(b/a)
1920	96	166	57.8	84	92	91.3
1921	154	385	40.0	170	253	67.2
1922	82	290	28.3	36	58	62.1
1923	149	459	32.5	312	657	42.2
1924	120	296	40.5	57	329	14.6
1925	234	695	33.7	158	483	24.6
1926	646	973	66.4	267	527	50.1
1927	538	1,045	51.5	401	1,011	39.3
1928	425	797	53.3	233	487	47.8
1929	167	482	34.6	639	1,256	50.6
1930	575	1,003	57.3	639	1,720	37.2
1931	792	1,868	42.4	676	2,006	33.7
1932	637	1,442	44.2	175	726	24.1
1933	332	1,012	32.8	416	1,379	30.2
1934	658	1,418	46.4	801	1,865	42.9
1935	599	1,326	45.2	622	1,672	37.2
1936	520	1,037	50.1	606	1,647	36.8
1937	254	625	40.6	516	1,396	37.0
1938	304	704	43.2	369	1,215	30.4
1939	396	824	48.1	405	1,220	33.2
1940	298	560	53.2	406	919	44.2
합계	7,976	17,407	45.8	7,988	20,918	37.7

동’이 전개된 1934~1935년의 세 번째 고조기가 큰 차별성을 나타내었다고 보
기 어렵다.

다음으로 전체 선별 기사에서 ‘답론 기사’가 차지하는 비율을 대해 살펴
보자. <표5>는 두 신문의 연도별 ‘조선 역사·문화’ 관련 기사에서 ‘답론 기

표6-1930~1940년 《동아일보》·《조선일보》 ‘조선 역사·문화’ 관련 ‘담론 기사’의 연도별, 분야별 출현 빈도

(단위: 건, %)

매체 영역	1930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계			합계 비율	
	동아	조선	동아	조선	동아	조선	동아	조선	동아	조선	동아	조선	동아	조선	동아	조선	동아	조선	동아	조선	동아	조선	동아	조선	합계	동아	조선
고적	3	14	64	38	166	1	55	22	60	59	73	94	41	60	13	37	20	24	79	8	18	8	*592	*365	957	8.2	5.0
기행	12	51	118	56	115	3	45	37	96	72	110	75	21	135	51	76	23	29	64	7	29	21	*684	*562	1,246	9.4	7.8
문학	215	60	194	119	118	50	44	127	69	184	111	153	69	130	76	111	87	39	123	168	56	177	*1,162	*1,318	2,480	16.1	18.2
미술	9	0	16	6	8	0	9	6	25	7	7	18	16	16	0	20	2	9	14	5	2	27	108	114	222	1.5	1.6
민속	9	22	70	10	43	19	10	15	37	70	49	19	33	24	9	29	45	64	20	42	30	19	355	333	688	4.9	4.6
신간	1	0	1	5	1	0	1	0	0	0	0	0	4	1	0	6	1	3	6	2	1	0	16	17	33	0.2	0.2
어학	93	248	221	214	172	66	93	107	88	104	78	129	55	119	35	101	38	76	76	137	41	42	*990	*1,343	2,333	13.7	18.5
역사	395	343	291	338	362	83	94	217	358	317	278	289	346	217	89	177	136	143	129	147	168	95	*2,646	*2,366	5,012	36.6	32.7
음악	6	20	10	2	9	3	10	57	24	49	16	54	10	21	13	26	37	54	5	23	1	8	141	317	458	1.9	4.4
철학	40	15	24	4	4	0	72	1	19	6	41	19	9	14	28	3	0	8	21	2	2	6	260	78	338	3.6	1.1
총론	6	25	20	14	9	5	13	5	37	21	21	32	3	19	9	32	9	24	5	10	5	10	137	197	334	1.9	2.7
한의학	0	0	2	1	1	1	0	0	8	86	5	2	11	15	4	0	0	0	10	0	5	0	46	105	151	0.6	1.5
기타	9	3	14	5	6	1	3	2	13	4	5	6	24	10	5	6	12	33	8	15	3	41	102	126	228	1.4	1.7
계	798	801	1,045	812	1,014	232	449	596	834	979	794	890	642	781	332	624	410	506	560	566	361	454	7,239	7,241	14,480	100.0	100.0
2중	202	139	217	130	90	55	95	107	136	120	167	246	106	140	76	92	85	84	162	153	63	48	1,399	1,314	2,713	—	—
3중	9	10	18	3	136	1	11	35	20	29	14	11	8	16	1	8	6	13	1	4	0	0	224	130	354	—	—
4중	1	1	0	0	5	0	0	1	0	0	0	0	0	1	0	0	3	9	0	0	0	0	9	12	21	—	—

사'가 차지하는 비율을 정리한 것이다. 1920년대 두 신문의 선별 기사 수(합계)에서 '담론 기사' 수(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동아일보》 46.7%, 《조선일보》 43.9%를 나타내었으며, 1930~1940년에는 《동아일보》 45.5%, 《조선일보》 35.7%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조선 역사·문화' 관련 기사에서 담론 기사가 차지하는 비율의 경우, 《동아일보》는 연도별로 다소의 편차가 있지만 1920년대와 1930~1940년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대체로 40~50%의 비율을 유지했던 것에 비해, 《조선일보》는 1920년대에 비해 1930년대에 들어서 '담론 기사'의 비율이 낮아지고, '스트레이트 기사'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살펴볼 수 있다.

다음으로 두 신문의 '조선 역사·문화' 관련 '담론 기사'의 내용을 기준으로 어떠한 분야의 기사로 구성되었는가에 대해 살펴보자. <표6>은 1930~1940년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조선 역사·문화' 관련 '담론 기사'의 연도별, 분야별 출현 빈도를 정리한 것이다. 두 신문의 상위 빈도 5개 분야가 동일하게 '역사', '어학', '문학', '기행', '고적'이었으며, 《동아일보》는 '문학' 분야의 기사 수가 '어학' 분야보다 더 많았던 반면, 《조선일보》에서는 '문학'과 '어학' 분야의 기사가 비슷한 빈도를 보이는 가운데 '어학' 분야가 조금 더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상위 5개 분야의 '담론 기사' 합계가 전체 '담론 기사' 합계에서 각각 83.9%(동아), 82.2%(조선)를 차지하여 총 13개 분야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기보다는 이들 분야에 집중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표7>은 두 신문의 '조선 역사·문화' 관련 '담론 기사' 중에서 상위 빈도 5개 분야의 기사 수와 비율이 1920년대와 1930~1940년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두 신문의 '담론 기사'에서 상위 빈도 5개 분야가 '역사', '어학', '문학', '기행', '고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났지만, 두 신문에서 공통적으로 1920년대와 1930~1940년 사이에 유사한 변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고적'과 '기행' 분야 기사의 절대적인 기사 수는

표7- '담론 기사' 빈도 상위 5개 분야의 기사 수와 비율의 변화 (단위: 건, %)

분야 \ 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1920~1929	1930~1940	1920~1929	1930~1940
고적	417 (12.1)	592 (8.2)	214 (7.0)	365 (5.0)
기행	398 (11.5)	684 (9.4)	322 (10.5)	562 (7.8)
문학	496 (14.3)	1162 (16.1)	536 (17.5)	1,318 (18.2)
어학	295 (8.5)	990 (13.7)	332 (10.9)	1,343 (18.5)
역사	1,017 (29.4)	2,646 (36.6)	1,161 (38.0)	2,366 (23.7)
합계	2,623 (75.8)	6,074 (83.9)	2,565 (83.9)	5,954 (82.2)

주: () 안의 수치는 비율(%)을 나타냄.

일정하게 증가했지만, 전체 ‘담론 기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두 신문 공히 1920년대에 비해 1930~1940년에 감소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두 신문 공히 ‘어학’ 분야의 ‘담론 기사’ 수와 비율이 대폭 증가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매체별로 정리해보자면, 《동아일보》는 1920년대에 ‘고적’과 ‘기행’ 분야의 기사 비율이 상당히 높았으나, 1930~1940년에는 두 분야의 기사 비율이 감소하는 가운데 ‘역사’와 ‘어학’, ‘문학’ 분야의 기사의 비율이 증가했다. 《조선일보》는 1930~1940년에 들어 ‘고적’과 ‘기행’ 분야와 더불어 ‘역사’ 분야의 기사 비율이 줄어드는 가운데 ‘어학’ 분야의 기사 비율이 대폭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조선 역사·문화’ 관련 담론 기사의 ‘저자’에 대해 살펴보자. 1920년대 ‘담론 기사’의 저자 빈도에 관한 분석은 선행 연구에서 다루었기 때문에⁸ 이 글에서는 1930~1940년 ‘담론 기사’의 저자 빈도를 살펴본 후, 이

8 위의 글, 12~17쪽. 추가 선별된 1920년대 《조선일보》 ‘담론 기사’의 저자 항목을 반영한 결과를 보면,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상위 빈도 20위 저자의 구성에는 변화가 없었으나,崔南善의 빈도가 30건 추가되어 총 120건으로 가장 높은 빈도의 저자로 되었으며, 그 외에

를 1920년대와의 비교하여 그 특징을 검토하고자 한다.

〈표8〉은 1930~1940년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조선 역사·문화’ 관련 ‘담론 기사’ 저자 빈도 상위 20위까지의 기사 빈도와 비율을 표시한 것이다. 먼저 《동아일보》의 ‘조선 역사·문화’ 관련 ‘담론 기사’는 정인보(鄭寅普)·이윤재(李允宰)·이은상(李殷相)·이선근(李瑄根) 등이,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문일평(文一平)·홍기문(洪起文)·안재홍(安在鴻)·장지영(張志暎) 등이 매우 높은 저자 빈도를 나타내는 가운데 상위 빈도 20위 저자의 기사가 전체 ‘담론 기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44.32%, 45.98%였다. 그에 비해 두 신문을 합산한 결과를 살펴보면, 상위 빈도 20위 저자의 기사가 전체 ‘담론 기사’에서 38.84%의 비율을 차지하여, 각각의 신문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두 신문의 ‘조선 역사·문화’ 관련 ‘담론 기사’의 저자가 그다지 겹치지 않았던, 즉 신문별로 필진이 나뉘어 있던 결과로 보인다. 〈표8〉에서 두 신문을 합산한 결과의 빈도 상위 20위 저자 중에서 홍기문·신채호·방종현은 《조선일보》에만, 이선근은 《동아일보》에만 게재했음을 살펴볼 수 있고, 그 외에도 대다수의 저자들이 특정 신문에 대부분의 기사를 게재하는 가운데 두 신문에 공히 상위 빈도를 나타내고 있는 저자는 밑줄로 표시한 이은상·김태준·양주동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8〉에 정리된 1930~1940년 ‘조선 역사·문화’ 관련 ‘담론 기사’의 빈도 상위 저자들을 1920년대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상위 빈도 저자의 구성에서 큰 변화가 나타났다는 점이 주목된다. 〈표8〉의 별(*)표시한 저자명은 1920년대에 빈도 상위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다. 《동아일보》에서는 빈

—記者가 13건, 鄭潤이 5건, 安在鴻이 4건이 추가되어 빈도 순위에서 약간의 변화가 나타났다 할 수 있다. 이들 변화는 기존 연구의 분석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오히려 “1920년대 신문 지면을 통해 ‘조선 역사·문화’ 관련 담론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지식인”으로 ‘최남선’을 강조했던 논지(14쪽)를 보강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8-1930~1940년 《동아일보》·《조선일보》 ‘조선 역사·문화’ 관련 ‘담론 기사’

저자의 기사 빈도

(단위: 건, %)

전체			동아일보			조선일보		
저자명	빈도 (a)	비율 (a/b)	저자	빈도 (a)	비율 (a/b)	저자명	빈도 (a)	비율 (a/b)
文一平	728	6.62	*鄭寅普	437	8.15	文一平	723	12.84
*鄭寅普	461	4.19	*李允宰	340	6.34	*洪起文	229	4.07
李殷相	401	3.65	李殷相	282	5.26	安在鴻	180	3.20
*李允宰	373	3.39	李瑄根	203	3.78	*張志暎	146	2.59
*金台俊	247	2.25	李秉岐	110	2.05	*金台俊	144	2.56
*洪起文	229	2.08	*張道斌	105	1.96	申采浩	139	2.47
李瑄根	203	1.85	*金台俊	103	1.92	*方鍾鉉	137	2.43
安在鴻	190	1.73	*崔益翰	96	1.79	李殷相	119	2.11
*張志暎	150	1.36	梁柱東	93	1.73	*林和	110	1.95
梁柱東	140	1.27	*石堂	64	1.19	*安廓	93	1.65
申采浩	139	1.26	*玄鎮健	63	1.17	李丙燾	75	1.33
*方鍾鉉	137	1.25	*金秉坤	61	1.14	*萬弩山人	70	1.24
*安廓	129	1.17	*金道泰	61	1.14	*申鼎言	60	1.07
李秉岐	125	1.14	*竹夫人	60	1.12	李光洙	58	1.03
*崔益翰	123	1.12	*金庠基	58	1.08	權惠奎	55	0.98
*張道斌	113	1.03	崔南善	53	0.99	*金恩燁	53	0.94
*林和	112	1.02	*宋錫夏	51	0.95	*徐椿	53	0.94
李丙燾	99	0.90	*玄相允	48	0.89	李昇圭	52	0.92
*朴魯哲	87	0.79	*金在喆	47	0.88	梁柱東	47	0.83
李光洙	85	0.77	*東亞浪人	43	0.80	*朴魯哲	46	0.82
합계	4,271	38.84	합계	2,378	44.32	합계	2,589	45.98
담론 기사 총계(b)	10,996		담론 기사 총계(b)	5,365		담론 기사 총계(b)	5,631	

주: *는 1920년대 저자 빈도 상위 20에 없던 인물임.

도 상위 20위 저자에서 정인보·이운재·장도빈(張道斌)·김태준·최익한(崔益翰) 등 16명이, 《조선일보》에서는 홍기문(洪起文)·장지영·김태준·방중현·임화(林和) 등 11명이 1920년대 저자 빈도 상위 20위에 찾아볼 수 없던

표9-1930~1940년 《동아일보》·《조선일보》 ‘조선 역사·문화’ 관련 ‘담론 기사’

저자의 분야별 기사 분포

(단위: 건, %)

역사			문학			어학		
저자	기사 빈도	비율	저자	기사 빈도	비율	인물명	기사 빈도	비율
文一平	646	88.7	*金台俊	228	92.3	*李允宰	196	52.5
*鄭寅普	340	73.8	李殷相	216	53.9	*洪起文	156	68.1
李殷相	208	51.9	梁柱東	130	92.9	*張志暎	150	100.0
李瑄根	202	99.5	文一平	118	16.2	梁柱東	123	87.9
*李允宰	184	49.3	*林和	96	85.7	*方鍾鉉	111	81.0
申采浩	139	100.0	*安廓	82	63.6	安在鴻	58	30.5
安在鴻	117	61.6	*萬弩山人	69	98.6	權惠奎	47	77.0
*張道斌	113	100.0	*竹夫人	57	95.0	崔鉉培	41	100.0
*金台俊	105	42.5	*金在喆	47	92.2	金碩坤	40	53.3
李丙燾	99	100.0	*李昇圭	47	90.4	金允經	34	72.3
*朴魯哲	79	90.8	李秉岐	41	32.8	李鉀	27	96.4
李秉岐	75	60.0	*鄭寅普	34	7.4	姜駿遠	27	100.0
*洪起文	73	31.9	*李允宰	32	8.6	李克魯	26	81.3
萬弩山人	69	98.6	*金思燁	30	52.6	*鄭寅普	17	3.7
*崔益翰	66	53.7	趙鏞薰	30	81.1	金億	17	48.6
石 堂	64	100.0	車相瓚	30	73.2	申明均	16	100.0
竹夫人	60	100.0	李應洙	25	100.0	李熙昇	16	88.9
金秉坤	59	78.7	金億	24	68.6	李光洙	16	18.8
金庠基	58	100.0	崔文鎮	22	100.0	金思燁	14	24.6
*安 廓	55	42.6	*崔益翰	21	17.1	高在然	14	100.0

주: *는 1920년대 저자 빈도 상위 20에 없던 인물임.

저자명이다. 이를 통해 두 신문에서 ‘조선 역사·문화’ 관련 ‘담론 기사’의 산출을 주도했던 1920년대의 ‘저자’ 구성이 1930~1940년에 들어서 크게 변화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920년대에 이선근은 《조선일보》, 이병도와 권덕규는 《동아일보》에 대부분의 기사를 기고했지만, 1930년대에 들어서 이선근은 《동아일보》, 이병도와 권덕규는 《조선일보》로 주된 기고

매체가 바뀌었다는 점도 눈에 띈다.

〈표9〉는 1930~1940년 두 신문의 ‘조선 역사·문화’ 관련 ‘담론 기사’의 분야별 빈도(〈표6〉 참조)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던 세 분야, 즉 ‘역사’, ‘문학’, ‘어학’ 분야의 저자 빈도 상위 20위와 해당 저자가 작성한 전체 기사의 분야별 비율을 정리한 것이다. 별(*)표시한 저자명은 〈표8〉에서 빈도 상위 20위에 포함되었던 ‘저자’들이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단일 분야로 분류하기 곤란한 복합적인 내용의 기사는 다중 중복 분류한 빈도 수치로 작성된 것이다. 가령 〈표8〉에서 볼 수 있듯이 양주동이 작성한 기사는 총 140건인데, 〈표9〉에서 ‘문학’ 130건(92.9%), ‘어학’ 123건(87.9%), 도합 253건으로 집계되었다는 것은 그가 작성한 대다수의 기사가 ‘문학’과 ‘어학’ 분야로 중복 분류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표8〉과 〈표9〉를 통해 1920년대와 비교하여 1930~1940년에 들어서 ‘조선 역사·문화’ 관련 ‘담론 기사’의 산출을 새롭게 주도했던 저자들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역사’ 분야에서는 정인보·이윤재·장도빈 등이, ‘문학’ 분야에서는 김태준·임화·안확 등이, ‘어학’ 분야에서는 이윤재·홍기문·장지영·방종현 등이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표7〉에 대한 분석에서 두 신문이 공통적으로 1920년대에 비해 1930~1940년에 들어 ‘어학’ 분야의 ‘담론 기사’와 비율이 대폭 증가한 점을 떠올린다면, 그러한 양상을 주도했던 저자가 이윤재·홍기문·장지영·방종현 등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인물’명 기사 빈도에 대해 살펴보자. 〈표10〉은 1930~1940년 두 신문의 ‘조선 역사·문화’ 관련 담론 기사에서 출현한 ‘인물’명 상위 빈도 20위까지를 정리한 것이다. 인물명은 기사의 소재 혹은 내용을 추정해 볼 수 있는 항목으로서, 특히 국왕명은 행위자를 표기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하지만, 특정 시기를 표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특히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 머리말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인물명 빈도의 산정을 위한 원

표10-1930~1940년 《동아일보》·《조선일보》 ‘조선 역사·문화’ 관련 ‘답론 기사’의 인물명 기사 빈도 (단위: 건)

전체		동아일보		조선일보	
인물명	기사 빈도	인물명	기사 빈도	인물명	기사 빈도
朝鮮高宗	559	朝鮮世宗	287	朝鮮高宗	306
朝鮮世宗	553	朝鮮高宗	253	朝鮮世宗	266
*檀君	495	*檀君	244	*檀君	251
朝鮮宣祖	394	李成桂	208	朝鮮宣祖	209
李成桂	390	朝鮮宣祖	185	李成桂	182
#朝鮮英祖	308	*李舜臣	182	*明治	149
朝鮮太宗	294	*興宣大院君	163	#朝鮮英祖	147
朝鮮仁祖	288	朝鮮太宗	162	#朝鮮肅宗	142
#朝鮮肅宗	280	#朝鮮英祖	161	朝鮮仁祖	134
*李舜臣	280	朝鮮仁祖	154	朝鮮太宗	132
*明治	273	#朝鮮肅宗	138	*大正	132
*興宣大院君	267	#朝鮮正祖	138	#朝鮮正祖	125
#朝鮮正祖	263	*昭和	137	*昭和	124
*昭和	261	朝鮮世祖	128	*王建	120
朝鮮世祖	244	*明治	124	朝鮮世祖	116
*大正	237	*王建	113	朝鮮中宗	116
*王建	233	*高朱蒙	108	*興宣大院君	104
朝鮮中宗	212	*孔子	107	*李舜臣	98
*高朱蒙	202	*眞興王	106	*李珣	98
*孔子	198	*大正	105	*箕子	96

주: *는 조선국왕이 아닌 인물명임. #는 조선 후기 국왕의 인물명임.

칙으로서 하나의 기사에 특정 인물명이 여러 번 출현하더라도 1회로 산정하여 측정했으며, 따라서 <표10>의 빈도는 특정 인물명이 출현하는 기사의 빈도이다. 그리고 기사 원문에서 다양한 표기(단어)로 출현하는 인물명, 가령 ‘리충무공’, ‘이충무공’, ‘忠武公舜臣’, ‘李舜臣’(리순신), ‘李舜臣’(이순신), ‘이순신’, ‘리순신’, ‘李忠武’, ‘忠武’ 등을 빈도 산정을 위한 대표 인물명, 즉

‘李舜臣’(이순신)으로 환산하여 측정한 것이며, 국왕 인물명의 경우에도 ‘太祖’(태조), ‘太宗’(태종), ‘高宗’(고종), ‘肅宗’(숙종) 등 적지 않은 명칭이 고려 왕조, 조선 왕조, 중국 여러 왕조에서 사용되었기에 그 맥락을 파악하여 ‘朝鮮高宗’, ‘高麗高宗’, ‘唐高宗’ 등 대표 인물명으로 환산하여 측정한 것이다.

〈표10〉을 살펴보면, 두 신문의 상위 빈도 20위 인물명이 신문에 따라 빈도의 순위에 차이는 나타나지만, 20위 내에 인물명 중 16명이 일치하는데, 이는 1920년대에 14명이었던 것에 비해 다소 증가한 수치이다. 이와 더불어 〈표10〉에서 두 신문의 최상위 다섯 인물명을 보면 ‘조선고종’, ‘조선세종’, ‘단군’, ‘조선선조’, ‘이성계’로 동일하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 이는 1920년대에 관한 연구 결과에서도 그러하다는 점에서 1920~1940년 식민지 시기 발행된 두 신문의 ‘조선 역사·문화’ 관련 ‘담론 기사’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언급되고 다루어진 내용을 일정하게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1920년대에 비해 1930~1940년에 들어 ‘단군’이 출현하는 기사의 빈도가 ‘조선고종’, ‘조선세종’에 비해 다소 낮아지는 양상을 나타내었다고 할 수 있다.

〈표10〉에서 조선 국왕이 아닌 인물명에 별(*)표시를 했는데, 1920년대와 비교했을 때 ‘기자(箕子)’와 함께 고려 시기의 ‘공민왕’, ‘고려현종’, ‘정몽주’ 등이 기사 빈도 상위 20위에서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고대사 ‘인물’명으로서 ‘고주몽(高朱蒙)’과 ‘진흥왕(眞興王)’ 등이 포함되어 고대사, 특히 삼국시기에 대한 관심이 다소 높아졌음을 살펴볼 수 있으며, 일본 천황 ‘인물’명은 다양한 분야의 기사에서 연도를 표시할 때 사용되어 상위 빈도를 나타내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 국왕의 상위 빈도 인물명을 살펴보면, 1920년대와 비교했을 때 몇 가지 점이 주목된다. 먼저 1920년대와 1930~1940년 모두 상위 빈도 20위에 포함된 조선 국왕을 시기 순으로 보면 ‘이성계’, ‘조선태종’, ‘조선세종’, ‘조선세조’, ‘조선중종’, ‘조선선조’, ‘조선인조’, ‘조선영조’였는데, ‘조선세종’

과 ‘조선영조’를 제외한다면, 대체로 대내외의 정치적 격변이 일어났던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두 신문을 합산한 빈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1920년대에는 상위 빈도 20위에 있었으나, 1930~1940년에는 그렇지 못한 조선 국왕을 시기 순으로 보면 ‘조선성종’, ‘조선명종’, ‘연산군’이었고, 1920년대에는 없었지만, 1930~1940년대에는 상위 빈도 20위에 등장한 조선 국왕을 시기 순으로 보면 ‘조선숙종’, ‘조선정조’였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1920년대에 비해 1930~1940년에 들어서 왜란·호란을 기준으로 조선 전기의 국왕 인물명이 출현한 기사의 상대적 비율이 줄어들고, 조선 후기의 국왕 인물명이 상대적으로 증가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조선영조’ 인물명 출현 기사 빈도가 1920년대에 비해 1930~1940년에 들어 눈에 띄게 더 높은 상위 빈도를 나타내었다는 점 또한 그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표10>에서 볼 수 있듯이, # 표시한 ‘조선숙종’, ‘조선영조’, ‘조선정조’가 출현하는 기사 빈도의 상대적 비율이 1920년대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아졌다는 점은 1930년대에 들어서 조선 후기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증대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이다.

<표11>는 1930~1940년 두 신문의 ‘조선 역사·문화’ 관련 ‘담론 기사’의 분야별 빈도(<표6> 참조)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던 세 분야, 즉 ‘역사’, ‘문학’, ‘어학’ 분야의 빈도 상위 20위 ‘인물’명과 해당 ‘인물’명이 출현하는 전체 기사 빈도에서 각 분야의 기사 빈도가 차지하는 비율을 정리한 것이다. 전체 ‘담론 기사’에서 ‘역사’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문학’이나 ‘어학’ 분야에 비해 크게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역사’ 분야의 ‘인물’명 기사 빈도와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지만, ‘조선세종’과 ‘조선숙종’의 경우에는 ‘문학’ 분야나 ‘어학’ 분야의 기사에서도 적지 않은 출현 빈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역사’, ‘문학’ 분야에서는 대체로 당대의 관점에서 역사적인 ‘인물’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

표11-1930~1940년 《동아일보》·《조선일보》‘조선 역사·문화’ 관련 ‘답론 기사’

인물명 기사 빈도의 분야별 분포

(단위: 건, %)

역사			문학			어학		
인물명	기사 빈도	비율	인물명	기사 빈도	비율	인물명	기사 빈도	비율
朝鮮高宗	475	85.0	朝鮮世宗	115	20.8	朝鮮世宗	169	30.6
檀君	407	82.2	朝鮮宣祖	109	27.7	周時經	85	92.4
朝鮮世宗	349	63.1	#朝鮮肅宗	94	33.6	昭和	72	27.6
李成桂	309	79.2	李光洙	85	68.0	檀君	59	11.9
朝鮮宣祖	291	73.9	朝鮮仁祖	79	27.4	崔鉉培	40	95.2
朝鮮太宗	257	87.4	#朝鮮英祖	77	25.0	李克魯	38	90.5
興宣大院君	242	90.6	朝鮮世祖	68	27.9	大正	35	21.6
#朝鮮英祖	227	73.7	春香	67	72.0	明治	33	12.1
朝鮮仁祖	218	75.7	#朝鮮正祖	64	24.3	朴赫居世	32	24.2
#朝鮮肅宗	202	72.1	朝鮮中宗	60	28.3	申明均	30	90.9
王建	198	85.0	李成桂	56	14.4	崔世珍	30	100.0
明治	195	71.4	朝鮮太宗	56	19.0	權惠奎	29	90.6
朝鮮世祖	181	74.2	朝鮮成宗	54	29.8	朝鮮中宗	29	13.7
高朱蒙	179	88.6	李珣	49	27.2	金允經	29	83.9
#朝鮮正祖	172	65.4	崔南善	48	47.1	朴勝彬	28	84.8
李舜臣	168	60.0	李舜臣	47	16.8	成三問	26	33.3
大正	162	68.4	朝鮮高宗	44	7.9	朝鮮世祖	26	10.7
箕子	155	88.1	朝鮮光海君	44	29.9	申叔舟	26	40.0
朝鮮中宗	152	71.7	金笠	44	89.8	#朝鮮英祖	26	8.4
昭和	141	54.0	鄭夢周	42	32.1	李常春	26	100.0

에 비해 ‘어학’ 분야에서는 ‘조선세종’, ‘周時經’(주시경) 외에는 절대적인 기사 빈도는 낮다고 하더라도 ‘崔鉉培’(최현배), ‘李克魯’(이극로), ‘申明均’(申明균), ‘權惠奎’(권덕규), ‘金允經’(김윤경), ‘朴勝彬’(박승빈), ‘李常春’(이상춘) 등 다수의 당대 ‘인물’명이 빈도 상위에 올랐음이 눈에 띈다. 이는 1930년대 전반에 이어졌던 ‘조선어강습’(한글강좌·강연), ‘조선어철자법’(한글맞춤법) 토론회 등에 관한 기사에서 당대 여러 한글학자들이 출현했기 때문이었다.

끝으로 <표10>을 살펴보면 1920년대에 비해 1930~1940년에 들어서 ‘조선영조’, ‘조선숙종’, ‘조선정조’ 등 조선 후기 국왕의 ‘인물’명의 빈도가 증가했던 양상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는 <표11> # 표시 ‘인물’명 빈도를 통해 단순히 ‘역사’ 분야의 ‘담론 기사’에 한정되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문학’ 분야와 더불어 나타난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1930~1940년 ‘조선 역사·문화’ 관련 ‘담론 기사’에서 활용된 레퍼런스에 관하여 살펴보자. <표12>는 두 신문의 1930~1940년대 ‘조선 역사·문화’ 관련 담론 기사에서 출현한 레퍼런스의 기사 빈도 상위 20위까지를 정리한 것이다. 레퍼런스는 신문 매체의 특성으로 인해 상세하게 표기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담론 기사’의 지적 자원과 소재 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레퍼런스의 빈도 산정을 위한 원칙 또한 인물명과 동일하게 하나의 기사에 특정 레퍼런스가 여러 차례 출현하더라도 1회로 산정했기 때문에 <표12>의 빈도는 특정 레퍼런스명이 출현하는 기사의 빈도이다. 그리고 기사 원문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레퍼런스를 밝히고 있는데, 가급적 원문 표기 방식을 존중하되 『朝鮮史』(조선사)와 같이 동일한 서명이지만 저자가 다른 경우, 별개의 레퍼런스로 산정했다. 그리고 세밀한 레퍼런스 표기 형태는 상위 범주의 레퍼런스에 포함하여 산정했다. 예를 들어, 기전체(紀傳體) 사서의 경우, ‘본기(本紀)’, ‘전(傳)’, ‘지(志)’ 등을 구체적으로 표기한 경우가 적지 않지만, 이를 각각의 산정 단위로 삼지 않고 『삼국사기』, 『고려사』, 『사기』 등으로 환산하여 빈도를 측정했으며, ‘실록’의 경우에도 ‘태조실록’, ‘세종실록’ 등으로 출처를 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이를 ‘조선왕조실록’으로 환산하여 빈도를 측정했다.

<표12>를 살펴보면, 먼저 기사 빈도 상위 20위에 있는 두 신문의 레퍼런스가 빈도 고저의 차이는 있지만, 20개의 레퍼런스 중 15개가 일치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를 1920년대 두 신문의 레퍼런스 출현 양상과 비교해 보면

표12-1930~1940년 《동아일보》·《조선일보》‘조선 역사·문화’ 관련 ‘답론 기사’의
레퍼런스 기사 빈도 (단위: 건)

전체		동아일보		조선일보	
레퍼런스	기사 빈도	레퍼런스	기사 빈도	레퍼런스	기사 빈도
三國史記	537	三國史記	285	三國史記	252
三國遺事	338	三國遺事	168	三國遺事	170
*三國志	273	*三國志	139	訓民正音	142
訓民正音	251	高麗史	127	*三國志	134
高麗史	241	訓民正音	109	*史記	132
*史記	223	*史記	91	春香傳	126
春香傳	211	春香傳	85	高麗史	114
*漢書	180	月印千江之曲	82	*漢書	101
*後漢書	168	龍飛御天歌	81	*後漢書	92
訓蒙字會	148	杜詩諺解	81	朝鮮王朝實錄	84
朝鮮王朝實錄	142	*漢書	79	訓蒙字會	74
東國輿地勝覽	135	聖經	78	東國輿地勝覽	65
月印千江之曲	130	*後漢書	76	아리랑	56
杜詩諺解	118	訓蒙字會	74	沈清傳	49
龍飛御天歌	112	東國輿地勝覽	70	月印千江之曲	48
東國文獻備考	101	東國文獻備考	67	樂學軌範	46
聖經	98	動動	62	杜詩諺解	37
樂學軌範	90	朝鮮王朝實錄	58	東國文獻備考	34
井邑詞	85	井邑詞	54	處容歌	33
*舊唐書	81	周易	50	鷄林類事	31

차이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20년대에는 두 신문의 레퍼런스 기사 빈도 상위 20위를 보면, 절대적인 기사 빈도에서 두 신문의 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나 《조선일보》는 지극히 낮은 빈도를 보였으며, 《동아일보》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저자 빈도를 보인 최남선의 ‘답론 기사’에서 중국 고대 경전의 레퍼런스가 높은 빈도를 나타냄으로써 두 신문의 상위 레퍼런스 기사 빈도의

양상이 크게 달랐다.⁹ 그에 비해 <표12>에서 볼 수 있듯이 1930~1940년 두 신문의 레퍼런스 기사 빈도를 보면, 두 신문 사이에 절대적인 기사 빈도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상위 기사 빈도의 레퍼런스 또한 20개 중 15개 항목이 일치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이와 함께 두 신문을 합산한 기사 빈도 상위 레퍼런스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1920년대와 1930~1940년 사이에서 일치하는 레퍼런스는 총 8종(『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사기(史記)』, 『고려사(高麗史)』, 『훈민정음(訓民正音)』,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한서(漢書)』, 『춘향전(春香傳)』)에 그친다. 이는 1920년대와 1930~1940년 사이 ‘조선 역사·문화’ 관련 담론 기사에서 지적 자원의 활용 양상이 달라졌음을 보여 준다. 1930~1940년 두 신문의 기사 빈도 상위 레퍼런스에서 나타난 특징으로서 첫째, 『사기』, 『한서』, 『삼국지』, 『후한서』, 『구당서』 등 이른바 중국 정사(正史)의 한국 고대사 관련 기록을 활용한 빈도가 높아졌다는 점이다. 둘째, 『조선왕조실록』을 레퍼런스로 활용한 기사의 빈도가 높아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는 『훈몽자회(訓蒙字會)』,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 『두시언해(杜詩諺解)』,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악학궤범(樂學軌範)』, 『정읍사(井邑詞)』 등 고전 문학과 어학에 관한 서적과 작품 등이 다수 상위 빈도를 나타내었다는 점이다.

<표13>은 1930~1940년 두 신문의 ‘조선 역사·문화’ 관련 ‘담론 기사’의 분야별 빈도(<표6> 참조)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던 세 분야, 즉 ‘역사’, ‘문학’, ‘어학’ 분야의 ‘레퍼런스’ 기사 빈도 상위 20위와 해당 ‘레퍼런스’가 출현하는 전체 기사 빈도에서 각 ‘분야’의 기사 빈도가 차지하는 비율을 정리한 것이다. <표13>을 통해 앞서 언급한 1930~1940년 두 신문의 ‘조선 역사·문화’ 관련 ‘담론 기사’에서 출현한 상위 빈도 레퍼런스의 특징이

9 위의 글, 19~20쪽.

표13-1930~1940년 《동아일보》·《조선일보》 ‘조선 역사·문화’ 관련 ‘담론 기사’
레퍼런스 기사 빈도의 분야별 분포 (단위: 건, %)

역사			문학			여학		
레퍼런스	기사 빈도	비율	레퍼런스	기사 빈도	비율	레퍼런스	기사 빈도	비율
三國史記	440	81.9	春香傳	156	73.9	訓民正音	213	84.9
三國志	238	87.2	三國遺事	122	36.1	訓蒙字會	134	90.5
三國遺事	227	67.2	三國史記	102	19.0	杜詩諺解	115	97.5
史記	199	89.2	月印千江之曲	94	72.3	月印千江之曲	114	87.7
高麗史	172	71.4	杜詩諺解	92	78.0	龍飛御天歌	100	89.3
漢書	163	90.6	龍飛御天歌	87	77.7	三國史記	83	15.5
後漢書	146	86.9	井邑詞	81	95.3	三國遺事	80	23.7
朝鮮王朝實錄	99	69.7	動動	75	94.9	井邑詞	68	80.0
東國輿地勝覽	96	71.1	樂學軌範	74	82.2	動動	65	82.3
東國文獻備考	75	74.3	高麗史	72	29.9	鷄林類事	54	79.4
舊唐書	67	82.7	處容歌	71	88.8	朝鮮語讀本	50	100.0
訓民正音	63	25.1	訓蒙字會	58	39.2	한글공부	49	100.0
魏畧	50	100.0	沈清傳	54	70.1	處容歌	45	56.3
資治通鑑	47	97.9	西京別曲	46	100.0	樂學軌範	37	41.1
海東繹史	45	93.8	翰林別曲	41	100.0	三國志	34	12.5
隋書	44	88.0	樂章歌詞	38	100.0	한글원본	32	100.0
新唐書	43	93.5	訓民正音	33	13.1	朝鮮王朝實錄	30	21.1
東國通鑑	38	84.4	洪吉童傳	32	91.4	西京別曲	29	63.0
晉書	37	94.9	鷄林類事	31	45.6	日用計數法	28	100.0
北史	35	85.4	九雲夢	29	90.3	高麗史	27	11.2

분야별로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역사’ 분야에서는 한국 역사 연구의 기본 사료라 할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등이 상위 빈도를 나타내는 가운데 『삼국지(三國志)』, 『사기』, 『한서』, 『후한서』, 『구당서』, 『위략(魏略)』, 『수서(隋書)』, 『진서(晉書)』, 『북사(北史)』 등 소위 중국 정사가 레퍼런스로 다수 등장함을 알 수 있다. 이는 1930~1940년에 들어 두 신문의 ‘역사’ 분야 ‘담론 기사’에서 『사기』 ‘조선열

전(朝鮮列傳)’, 『한서』 ‘조선전(朝鮮傳)’, 『후한서』 ‘동이열전(東夷列傳)’, 『삼국지』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 『진서』 ‘동이열전(東夷列傳)’, 『구당서』 ‘신당서(新唐書)’ ‘동이열전(東夷列傳)’ 등 한국 고대사에 관한 ‘중국 정사’의 기록이 폭넓게 자료로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중국 역사서 『자치통감(資治通鑑)』 또한 ‘한사군(漢四郡)’에 관한 서술로 인해 상위 빈도를 나타낸 것이며, 상대적으로 한국 고대사에 대한 서술과 전거가 풍부했던 조선의 역사서 『동국통감(東國通鑑)』, 『해동역사(海東繹史)』가 상위 빈도 레퍼런스에 등장하는 것 역시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표10>, <표11>을 통해 기사 빈도 상위 ‘인물’명에 한국 고대사 ‘인물’명이 소수에 그쳤다는 점과 <표13>에서 한국 고대사 관련 자료들이 레퍼런스 빈도의 상위에 다수 등장하는 양상을 함께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역사’ 분야의 여타 ‘담론 기사’에 비해 ‘한국 고대사’ 관련 ‘담론 기사’에서 상대적으로 조밀하게 레퍼런스가 활용되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역사’, ‘문학’, ‘어학’의 세 분야에서 모두 상위 빈도를 나타낸 레퍼런스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훈민정음』 등이었는데, ‘분야’에 따라 기사 빈도의 차이를 보였다. 『삼국사기』는 ‘역사’ 분야의 기사에서 출현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가운데 ‘문학’과 ‘어학’ 분야의 기사가 각각 19.0%, 15.5%의 비율을 나타내었고, 『삼국유사』의 기사 빈도는 ‘역사’ 분야가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이면서도 ‘문학’과 ‘어학’ 분야에서도 적지 않은 비율을 나타내어 각각 36.1%, 23.7%의 비율을 보였다. 또한 『훈민정음』은 ‘어학’ 분야의 기사에서 출현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가운데 ‘역사’와 ‘어학’ 분야에서 각각 25.1%, 13.1%를 나타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학’과 ‘어학’ 분야를 살펴보면, 먼저 ‘역사’ 분야의 상위 빈도 레퍼런스와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이 눈에 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역사’ 분야의 상위 빈도 레퍼런스에는 등장하지 않으면서도 ‘문학’과 ‘어학’ 분야 모두에서

다수의 레퍼런스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월인천강지곡』, 『두시언해』, 『용비어천가』, 「정읍사」, 「동동(動動)」, 『악학궤범』, 「처용가(處容歌)」, 『훈몽자회(訓蒙字會)」, 「서경별곡(西京別曲)」, 『계림유사(鷄林類事)」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흥미롭게도 이들 레퍼런스가 ‘문학’과 ‘어학’ 분야에서 출현하는 비율의 합계가 대부분 150%를 훌쩍 상회하고 있으며, 낮은 경우에도 「처용가」 145.1%, 『훈몽자회』 129.7%, 『계림유사』 125.0%, 『악학궤범』 123.3%를 나타내었다는 점에서 이들 레퍼런스가 출현하는 기사의 다수가 ‘문학’과 ‘어학’ 분야로 중복 분류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가령 <표 12>에서 「월인천강지곡」이 출현하는 전체 ‘답론 기사’의 수는 130건인데, <표 13>에서 ‘문학’ 분야로 분류된 94건, 그리고 ‘어학’ 분야로 분류된 114건의 기사에서 출현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월인천강지곡」이 ‘레퍼런스’로 출현하는 대다수의 기사가 ‘어학’과 ‘문학’ 분야로 중복 분류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 레퍼런스가 출현하는 중복 분류된 기사를 살펴보면, 그 다수가 양주동이 수 개의 주제로 나누어 기고한 기사들로서 ① ‘향가(鄕歌) 해독’에 관한 연재 기사, ② 「동동」, 「정읍사」, 「처용가」, 「정과정(鄭瓜亭)」, 「쌍화점(雙花店)」, 「서경별곡」, 「한림별곡(翰林別曲)」 등 고려가요, 경기체가(景幾體歌)에 대한 어학적 해석을 시도한 연재 기사들이었다.

‘문학’ 분야의 상위 빈도 레퍼런스 중에서 ‘역사’, ‘어학’ 분야와 거의 겹치지 않는 것으로는 『춘향전』, 『심청전』, 『홍길동전』, 『구운몽(九雲夢)』 등을 찾아볼 수 있으며, ‘어학’ 분야의 레퍼런스 중에서 ‘역사’, ‘문학’ 분야와 거의 겹치지 않는 상위 빈도의 레퍼런스로는 ‘조선어철자법’(한글맞춤법) 개정을 둘러싸고 이슈화된 보통학교 교과서 『조선어독본(朝鮮語讀本)』, 그리고 1929년부터 조선일보사의 주도로 전개된 ‘문자보급운동’의 교재 『한글원본』, 1931년부터 동아일보사가 주도했던 ‘브나로드운동’의 교재 『한글공부』, 『일용계산법(日用計數法)』 등을 찾아볼 수 있다.

IV. ‘스트레이트 기사’ 분석

다음으로 1920~1940년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조선 역사·문화’ 관련 ‘스트레이트 기사’에 대해 살펴보자. ‘스트레이트 기사’로 분류된 기사들은 기사 성격으로 인해 앞서 다룬 ‘담론 기사’와 달리 저자나 레퍼런스 등의 정보는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인물명 정보 또한 크게 분산된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먼저 1920~1940년 식민지 시기 발행된 두 신문의 ‘조선 역사·문화’ 관련 ‘스트레이트 기사’의 연도별 추이를 개관하고, 이어서 1930~1940년 ‘스트레이트 기사’의 분야별 구성과 그 시간적 추이를 살펴본 후 1920년대에 비교하여 그 특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표14〉는 두 신문의 ‘조선 역사·문화’ 관련 기사 중에서 연도별 ‘스트레이트 기사’의 수와 전체 기사 수에서 ‘스트레이트 기사’가 차지하는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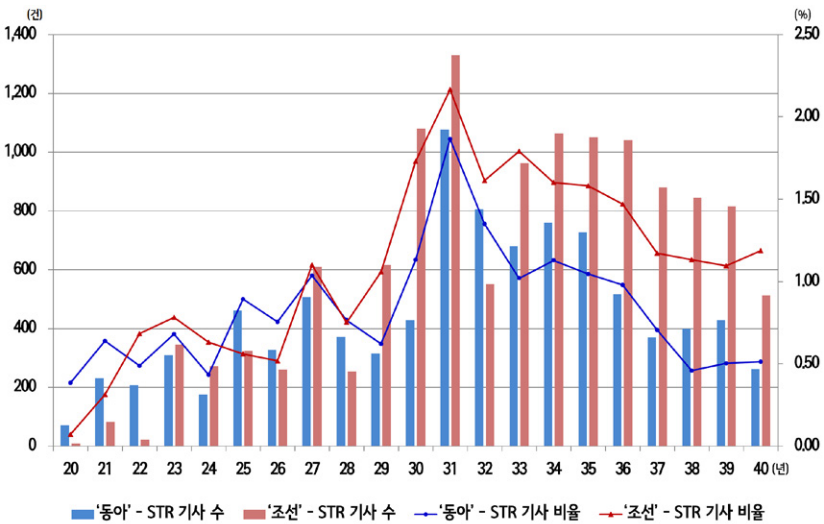


그림3-1920~1940년 연도별 《동아일보》·《조선일보》 ‘조선 역사·문화’ 관련 ‘스트레이트 기사’의 수와 비율

표14-1920~1940년 《동아일보》·《조선일보》 연도별 ‘조선 역사·문화’ 관련
 ‘스트레이트 기사’의 수와 비율 (단위: 건, %)

연도	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전체 기사 수 (t)	스트레이트 기사 수(s)	비율 (s/t)	전체 기사 수 (t)	스트레이트 기사 수(s)	비율 (s/t)
1920		18,202	70	0.38	11,214	8	0.07
1921		36,133	231	0.64	26,499	83	0.31
1922		42,498	208	0.49	3,222	22	0.68
1923		45,585	310	0.68	44,138	345	0.78
1924		40,433	176	0.44	43,029	272	0.63
1925		51,605	461	0.89	58,125	325	0.56
1926		43,302	327	0.76	50,087	260	0.52
1927		48,926	507	1.04	55,422	610	1.10
1928		48,550	372	0.77	33,803	254	0.75
1929		50,623	315	0.62	58,303	617	1.06
1930		37,832	428	1.13	62,510	1,081	1.73
1931		57,688	1,076	1.87	61,418	1,330	2.17
1932		59,657	805	1.35	34,133	551	1.61
1933		66,647	680	1.02	53,780	963	1.79
1934		67,317	760	1.13	66,479	1,064	1.60
1935		69,486	727	1.05	66,355	1,050	1.58
1936		52,754	517	0.98	70,804	1,041	1.47
1937		52,503	371	0.71	75,127	880	1.17
1938		87,083	400	0.46	74,637	846	1.13
1939		85,156	428	0.50	74,344	815	1.10
1940		51,105	262	0.51	43,247	513	1.19
합계		1,113,085	9,431	0.85	1,066,676	12,930	1.21

을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며, [그림3]은 <표14>의 내용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표14>와 [그림3]를 검토하기에 앞서 <표5>에서 살펴보았듯이, 1920~1940년 두 신문은 대부분의 연도에서 공통적으로 ‘담론 기사’에 비해 ‘스트레이트 기사’가 더 많은 빈도를 나타내었고, 특히 《조선일보》의 경우에

는 1930년대에 들어 ‘스트레이트 기사’의 비율이 더욱 높아져 65% 내외를 나타내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표14〉와 [그림3]을 살펴보면, 두 신문의 1920~1940년 ‘조선 역사·문화’ 관련 전체 기사와 ‘담론 기사’의 빈도에서 나타난 세 차례의 상대적 고조기가 ‘스트레이트 기사’에서는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인 추이를 본다면 두 번째 상대적 고조기인 1930~1931년의 시기에 정점을 이루고 있다는 점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두 번째 상대적 고조기의 기사 수와 비율이 첫 번째와 세 번째의 상대적 고조기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1920년대에 비해 1930~1936년의 시기에 두 신문이 공통적으로 ‘조선 역사·문화’ 관련 ‘스트레이트 기사’의 빈도와 비율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지만, 《동아일보》는 1937년부터는 1920년대 수준에 그친 반면, 《조선일보》는 1937년 이후에도 1920년대에 비해 높은 빈도와 비율을 지속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연도별 추이를 염두에 두면서 1930~1940년 두 신문의 ‘조선 역사·문화’ 관련 ‘스트레이트 기사’의 소재(내용)에 대해 살펴보자. 〈표15〉는 1930~1940년 두 신문의 ‘조선 역사·문화’ 관련 ‘스트레이트 기사’의 소재(내용)를 기준으로 분야별, 연도별 출현 빈도를 정리한 것이다. 두 신문의 상위 빈도 ‘분야’를 보면 공통적으로 ‘민속’, ‘어학’, ‘음악’ 분야의 기사가 두드러지게 높은 빈도를 보였지만, ‘음악’ 분야의 기사 빈도에서는 두 신문의 현격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1930~1940년 두 신문의 ‘조선 역사·문화’ 관련 ‘스트레이트 기사’의 분야별 분포를 1920년대의 그것과 비교해 보자.¹⁰ 1930년대에 들어서 분야별로 기사의 절대 빈도는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나, 《동아일보》

10 위의 글, 21~23쪽.

표15-1930~40년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 역사·문화’ 관련 ‘스트레이트 기사’의 연도별, 분야별 출현 빈도

(단위: 건, %)

매체 영역	1930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계			합계 비율	
	동아	조선	동아	조선	동아	조선	동아	조선	동아	조선	동아	조선	동아	조선	동아	조선	동아	조선	동아	조선	동아	조선	동아	조선	합계	동아	조선
고적	19	19	118	88	55	16	65	74	94	33	91	89	34	68	38	51	45	42	62	25	19	7	640	512	1,152	9.5	4.7
기행	6	60	54	35	38	7	42	42	46	19	42	29	22	26	24	38	34	26	39	24	7	5	354	311	665	5.2	2.8
문학	16	12	23	21	21	10	14	66	30	61	31	63	39	95	53	35	30	58	24	56	14	30	295	507	802	4.4	4.6
미술	23	3	14	8	8	2	10	4	21	4	14	11	14	8	7	7	2	3	15	16	9	4	137	70	207	2.0	0.6
민속	112	352	387	524	419	278	311	325	213	444	301	385	292	327	147	306	138	129	154	111	140	118	2,614	3,299	5,913	38.6	30.2
신간	62	89	112	108	67	41	39	41	48	46	61	41	42	56	22	57	20	42	26	41	8	24	507	586	1,093	7.5	5.4
어학	103	270	208	275	115	56	147	134	245	97	110	78	47	84	40	41	41	26	40	23	6	13	1,102	1,097	2,199	16.3	10.0
역사	17	36	49	43	16	10	37	54	36	63	54	43	28	33	1	16	17	24	15	56	2	8	272	386	658	4.0	3.5
음악	89	302	124	253	85	140	47	374	37	408	49	395	40	446	62	365	91	551	72	494	45	307	741	4,035	4,776	10.9	37.0
철학	1	2	2	0	0	0	1	1	0	0	7	4	0	2	0	0	0	0	1	0	0	0	12	9	21	0.2	0.1
총론	0	3	1	4	0	0	1	1	11	5	2	0	1	1	0	0	0	1	0	0	0	0	16	15	31	0.2	0.1
한의학	1	1	2	3	0	0	0	0	1	1	1	1	0	1	0	0	0	0	0	0	0	0	5	7	12	0.1	0.1
기타	0	3	7	3	3	2	0	1	8	0	13	6	15	12	4	9	2	23	3	16	18	11	73	86	159	1.1	0.8
계	449	1,152	1,101	1,365	827	562	714	1,117	790	1,181	776	1,145	574	1,159	398	925	420	925	451	862	268	527	6,768	10,920	17,688	100.0	100.0
2중	19	59	23	29	22	11	26	122	26	66	49	75	53	114	27	37	20	47	23	45	6	14	294	619	913	—	—
3중	1	6	1	3	0	0	4	16	2	24	0	10	2	2	0	4	0	16	0	1	0	0	10	82	92	—	—
4중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	—

의 경우 1920년대의 상위 빈도 분야는 ‘민속’(47.4%), ‘어학’(20.8%), ‘고적’(9.0%), ‘음악’(6.8%) 분야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1930~1940년에는 ‘민속’(38.6%), ‘어학’(16.3%), ‘음악’(10.9%), ‘고적’(9.5%) 분야가 상위 빈도를 보였다. 이는 ‘민속’과 ‘어학’ 분야의 기사 비율이 다소 낮아지는 가운데 음악 분야의 기사 비율이 다소 높아진 정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에 비해 《조선일보》는 1920년대에 ‘민속’(36.0%), ‘어학’(18.6%), ‘음악’(17.8%), ‘역사’(5.9%) 분야가 상위 빈도를 나타내었는데, 1930~1940년에는 ‘음악’(37%), ‘민속’(30.2%), ‘어학’(10.0%), ‘신간’(5.4%) 분야의 순으로 상위 빈도를 나타내어 ‘음악’ 분야 기사의 비율이 크게 높아지는 가운데 다른 분야의 비율이 상당히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30년대에 들어 두 신문의 연도별 ‘스트레이트 기사’ 빈도는 ‘민속’, ‘어학’, ‘음악’ 분야의 기사가 수위를 나타내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수 있지만, 1920년대에 ‘음악’ 분야의 기사 빈도에서 나타난 차이가 1930년대에 들어 더욱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그 주된 이유는 두 신문의 ‘라디오방송 편성 안내’ 기사에 있었다. 당시 ‘라디오방송 편성’에서 거의 매일 빠지지 않은 주된 프로그램이 ‘민요’와 ‘판소리’, 그리고 ‘정악(正樂)’·‘아악(雅樂)’의 연주 등이었다.

〈표16〉은 1920~1940년 두 신문의 연도별 ‘음악’ 분야 ‘스트레이트 기사 수’와 그에 포함된 ‘라디오방송 편성 안내’ 기사의 수를 정리한 것이다. 〈표16〉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1926년에 시작된 두 신문의 ‘라디오방송 편성’ 안내 기사는 1920년대부터 빈도의 차이를 나타내었지만,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동아일보》에 비해 《조선일보》가 연도별로 300~400회 이상 더 많은 빈도를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빈도의 차이는 〈표15〉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1930~1940년 두 신문의 ‘조선 역사·문화’ 관련 ‘스트레이트 기사’의 연도별 합계의 차이에 필적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앞서 〈표14〉와 [그림3]을

표16-1920~1940년 《동아일보》·《조선일보》 ‘음악’ 분야 ‘스트레이트 기사’ 수와
 ‘라디오방송 편성’ 안내 기사의 수 (단위: 건)

연도	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음악	라디오	음악	라디오
1920		0	0	0	0
1921		8	0	2	0
1922		2	0	0	0
1923		6	0	9	0
1924		1	0	8	0
1925		1	0	11	0
1926		1	1	30	25
1927		49	37	240	231
1928		75	53	97	84
1929		76	73	139	132
1930		89	58	302	230
1931		124	107	253	204
1932		85	70	140	111
1933		47	32	374	337
1934		37	9	408	355
1935		49	13	395	350
1936		40	12	446	361
1937		62	37	365	336
1938		91	68	551	491
1939		72	18	494	441
1940		45	10	307	284
합계		960	598	4,571	3,972

통해 언급했던 1937년 이후에도 《조선일보》의 ‘스트레이트 기사’ 빈도와 비율이 1920년대에 비해 높게 지속되었던 주된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음악’ 분야와 더불어 ‘조선 역사·문화’ 관련 ‘스트레이트 기사’ 빈도에서 수위를 나타낸 ‘민속’과 ‘어학’ 분야의 기사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표17-1930~1940년 《동아일보》·《조선일보》 ‘민속’ 분야 ‘스트레이트 기사’의 소재 (단위: 건, %)

전체			동아일보			조선일보		
항목	빈도 (a)	비율 (a/b)	항목	빈도	비율 (a/b)	항목	빈도	비율 (a/b)
씨름[脚戲]	3,704	62.6	씨름[脚戲]	1,775	67.9	씨름[脚戲]	1,929	58.5
웃놀이[擲柶]	1,100	18.6	그네뛰기[鞦韆]	452	17.3	웃놀이[擲柶]	796	24.1
그네뛰기[鞦韆]	1,031	17.4	활쏘기[弓術]	450	17.2	그네뛰기[鞦韆]	579	17.6
활쏘기[弓術]	724	12.2	웃놀이[擲柶]	304	11.6	활쏘기[弓術]	274	8.3
기타	378	6.4	기타	150	5.7	기타	229	6.9
합계	6,937	117.3	합계	3,131	119.8	합계	3,807	115.4
‘민속’ 스트레이트 기사합계(b)	5,913	100.0	‘민속’ 스트레이트 기사합계(b)	2,614	100.0	‘민속’ 스트레이트 기사합계(b)	3,299	100.0

‘민속’ 분야의 경우, 두 신문 모두 1920년대 비해 다소 낮아졌으나 전체 ‘스트레이트 기사’의 30%를 상회하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 ‘민속’ 분야 ‘스트레이트 기사’의 소재(내용)는 무엇이었을까?

〈표17〉은 1930~1940년 두 신문의 ‘민속’ 분야 ‘스트레이트 기사’의 소재를 기준으로 하여 그 빈도를 정리한 것이다. 〈표17〉에서 기사 소재(항목)의 합계 빈도와 ‘민속’ 분야 ‘스트레이트 기사’ 합계의 수치가 다른 이유는 하나의 기사가 복수의 소재(항목)를 다룬 경우, 이를 각각의 소재(항목)로 빈도를 측정했기 때문이다. 〈표17〉에서 볼 수 있듯이, 두 신문 공통적으로 ‘민속’ 분야 스트레이트 기사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것은 ‘씨름’이었지만, 다른 소재의 빈도는 다소 차이를 나타내었다. 《동아일보》의 경우, ‘그네뛰기’와 ‘활쏘기’, ‘웃놀이’의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웃놀이’, ‘그네뛰기’, ‘활쏘기’의 순을 보이는 가운데 《동아일보》에 비해 ‘웃놀이’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반면 ‘활쏘기’는 상당히 낮은 양상을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1930~1940년 ‘민속’ 분야의 기사 빈도를 1920년대와 비교해 보면, 1930년대에 들어서 ‘민속’ 분야 ‘스트레이트 기사’의 절대적인 빈도는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1920년대에는 해당 기사의 소재에서 ‘씨름’이 《동아일보》는 77.1%, 《조선일보》는 65.6%를 차지하여 압도적으로 ‘씨름’ 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¹¹ 1930~1940년에는 ‘씨름’이 여전히 주된 소재였지만 그것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가운데 ‘웃놀이’, ‘그네뛰기’, ‘활쏘기’의 기사 비율이 적지 않게 높아졌음을 살펴볼 수 있다.

〈표18〉은 1930~1940년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어학’ 분야 스트레이트 기사의 ‘소재’를 기준으로 하여 그 빈도를 정리한 것이다. 〈표18〉에서 기사 소재(항목)의 합계 빈도와 ‘어학’ 분야 ‘스트레이트 기사’ 합계의 수치가 다른 이유는 하나의 기사가 복수의 소재(항목)를 다룬 경우, 이를 각각의 소재(항목)로 빈도를 측정했기 때문이다. 〈표18〉을 살펴보면, ‘어학’ 분야 ‘스트레이트 기사’ 소재의 대부분이 ‘한글’ 연구와 교육, 기념 등에 관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 ‘질의·원고모집 규정’ 항목은 ‘한글질의란(한글質疑欄)’의 개설을 알리는 기사이거나 독자와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구성된 특정 코너, 가령 ‘가정고문란(家庭顧問欄)’, ‘지상병원(紙上病院)’ 등을 운영하기 위한 질의 규정, 그리고 특정한 주제의 원고 모집 규정에서 ‘한글’, ‘순한글’, ‘언문’ 등으로 작성할 것을 알리는 기사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어학’ 분야 ‘스트레이트 기사’의 대다수는 한글 교육·연구 등을 소재(항목)로 하는데, 원문 기사의 표현(단어)을 가급적 살리는 형태로 ‘소재’(항목)를 설정하여 각각의 소재(항목)가 갖는 차이를 나타내고자 했다. 먼저 ‘학교

11 위의 글, 23~24쪽. 《조선일보》의 수치(65.6%)는 II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추가 선별된 기사를 반영한 것이다. 추가 선별된 기사를 반영한 ‘민속’ 분야 ‘스트레이트 기사’의 빈도와 비율은 다음과 같다. 씨름(737, 65.6%), 활쏘기(118, 10.5%), 씨름·활쏘기 등 복합(178, 15.8%), 기타(91, 8.1%), 전체(1,124, 100.0%).

표18-1930~1940년 『동아일보』·『조선일보』 ‘어학’ 분야 ‘스트레이트 기사’의 소재 (단위: 건, %)

전체			동아일보			조선일보		
항목	빈도 (a)	비율 (a/b)	항목	빈도	비율 (a/b)	항목	빈도	비율 (a/b)
한글강습	467	21.2	한글강습	261	23.7	한글강습	206	18.8
야학	437	19.9	야학	234	21.2	야학	203	18.5
한글연구 단체·개인	256	11.6	질의·원고 모집 규정	164	14.9	한글강좌·강연	188	17.1
문자보급· 브나로드 운동	238	10.8	한글연구 단체·개인	137	12.4	문자보급운동	177	16.1
한글강좌·강연	236	10.7	학교교육· 교과서	81	7.4	한글연구 단체·개인	119	10.8
질의·원고 모집 규정	179	8.1	브나로드 운동	61	5.5	학교교육· 교과서	83	7.6
학교교육· 교과서	164	7.5	한글강좌·강연	48	4.4	서적	47	4.3
서적	95	4.3	서적	48	4.4	한글날	44	4.0
한글날	79	3.6	한글날	35	3.2	질의·원고 모집 규정	15	1.4
기타	143	6.5	기타	78	7.1	기타	65	5.9
합계	2,294	104.3	합계	1,147	104.1	합계	1,147	104.6
‘어학’ 스트레이트 기사합계(b)	2,199	100.0	‘어학’ 스트레이트 기사합계(b)	1,102	100.0	‘어학’ 스트레이트 기사합계(b)	1,097	100.0

교육·교과서’ 항목은 식민지 정규 학교 교육에 관련된 것으로서 당시 보통학교의 『조선어독본(朝鮮語讀本)』, 고등보통학교의 『조선어급한문독본(朝鮮語及漢文讀本)』 등 교과서의 개정, 가격 등에 관한 기사, 학생들의 맹휴 사건에서 ‘조선어’ 교육 문제를 다루는 기사 등을 범주화한 것이다. 이는 여타의 한글 교육·연구에 관한 소재(항목)가 주로 식민지 정규 교육 제도와 일정하게 구분되는 민간 활동이었던 점과 구별하기 위해 별도의 소재(항목)로 설정했다. 다음으로 ‘한글연구 단체·개인’, ‘서적’의 소재(항목)는 주로 한글에 관

한 연구 활동에 관련 것으로서 당시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 ‘조선어학연구회(朝鮮語學研究會)’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한글맞춤법’의 제정, 표준어의 설정, 외래어(외국어)의 한글표기법, 조선어사전편찬 등을 둘러싸고 전개된 활발한 연구와 토론을 다루거나 서울 외 여러 지역에서 한글 연구 단체들의 결성, 활동을 다루는 기사 등을 묶은 것이다.

‘어학’ 분야 ‘스트레이트 기사’의 소재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한글’ 교육, 교습 활동에 관한 것으로, <표18>의 ‘한글 강습’, ‘야학’, ‘문자보급·브나로드 운동’, ‘한글강좌·강연’ 등이 바로 그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각각의 ‘소재’(항목)는 일정한 의미의 차이가 있다. ‘야학’, ‘문자보급·브나로드 운동’은 주로 문해자(文解者)가 비문해자(非文解者)에게 한글을 교습하는 활동을, ‘한글강좌·강연’은 전문적인 한글 연구자가 문해자들에게 한글에 관한 좀 더 체계화된 지식을 전달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한글강습’의 경우를 보면, 두 신문 공히 전자와 후자의 성격을 갖는 활동 모두에 대해 ‘한글강습’이라고 표기했다. ‘한글강습’을 소재(항목)로 하는 전체 기사 빈도 467건 중에서 전자, 즉 ‘비문해자’에 대한 한글 교습 활동이 총 246건[《동아일보》 129건(12.7%), 《조선일보》 117건(10.7%)]이었고, 후자의 성격을 갖는 것이 221건[《동아일보》 132건(12.0%), 《조선일보》 89건(8.1%)]이었다. 후자의 ‘한글강습’은 그 성격이 ‘한글 강좌·강연’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설명을 바탕으로 1930~1940년 두 신문의 ‘어학’ 분야 ‘스트레이트 기사’ 빈도와 비율을 1920년대의 그것과 비교하여 살펴보자.¹² 1920년

12 위의 글, 28~29쪽. 제Ⅱ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일보》 추가 선별 기사를 반영한 어학 분야 ‘스트레이트 기사’의 빈도와 비율은 다음과 같다. 강습(103, 18.4%), 강연·강좌(66, 11.8%), 사회운동(32, 5.7%), 야학(281, 50.1%), 연구·연구회(22, 3.9%), 총독부(24, 4.3%), 학교교육(17, 3.0%), 기타(16, 2.9%), 합계(561, 100.0%).

대에는 ‘야학’, 즉 주로 ‘비문해자’에 대한 한글 교습 활동을 소재로 하는 기사의 비율이 두 신문 공히 50%에 달하는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으나, 1930~1940년에는 ‘비문해자’에 대한 한글 교습 활동을 소재로 하는 기사에서 ‘야학’의 비율이 대폭 줄어드는 가운데 ‘한글강습’의 일부와 두 신문이 주도했던 ‘문자보급·브나로드 운동’에 관한 기사로 변화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다음으로 1920년대에는 ‘한글연구 단체·개인’, ‘한글강좌·강연’을 소재로 한 기사가 전체 ‘어학’ 분야 ‘스트레이트 기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동아일보》는 11.7%, 《조선일보》는 15.7%를 나타낸 것에 비해 1930~1940년에는 《동아일보》는 16.8%, 《조선일보》 27.9%로 크게 증가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1920년대에 비해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글 연구 단체·개인, 즉 전문적인 한글 연구자들의 활동이 크게 활성화되는 가운데 이들의 활동에 대해 두 신문이 적극 반응한 결과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글강습’ 기사 빈도의 절반 내외, 즉 ‘어학’ 분야 ‘스트레이트 기사’ 전체의 10% 내외가 한글 연구자의 강좌·강연의 성격을 가졌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두드러진다고 할 것이다.

V. 맺음말

지금까지 1920~1940년 식민지 시기 조선인이 발행한 대표적인 신문으로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조선 역사·문화’ 관련 기사를 양적인 방법에 의해 살펴보았다. 1930~1940년을 주된 대상으로 삼는 가운데 그 분석 결과를 1920년대와 비교하여 전반적인 변화 양상에 접근하고자 했다.

먼저, 《동아일보》의 전체 기사 수는 113만 건, 《조선일보》는 106만 건을 상회하는 가운데 《동아일보》의 ‘조선 역사·문화’ 관련 기사는 1만 7,000여

건으로 전체 기사의 1.54%, 《조선일보》는 2만여 건으로 1.96%의 비율을 보였다. 그리고 1920년대 비해 1930~1940년에 ‘조선 역사·문화’ 관련 기사의 비율 또한 《동아일보》는 1.36%에서 1.72%로, 《조선일보》는 1.34%에서 2.32%로 크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두 신문 지면을 보면 1920년대에 비해 1930~1940년에 ‘조선 역사·문화’에 관한 관심이 대체로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두 신문의 연도별 ‘조선 역사·문화’ 관련 기사의 양적인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1931년을 정점으로 하는 가운데 세 차례의 상대적 고조기가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첫 고조기는 1926~1927년이고, 두 번째 고조기는 1930~1931년이며, 세 번째 고조기는 1934~1935년이었다. 기존 학계의 연구에서 식민지 ‘조선학’을 대표한다고 지칭되어 온 ‘조선학운동’이 전개된 1934~1935년의 기간을 보면, ‘조선 역사·문화’ 관련 기사의 수도 많을 뿐 아니라, 기사의 비율도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지만, ‘담론 기사’의 양적인 측면에서 볼 때 두 번째 상대적 고조기와 비교해서 세 번째 고조기가 큰 차별성을 나타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1934~1935년 ‘조선학운동’의 역사적, 학문적 배경으로서 두 번째 고조기, 즉 1930년대 초반 ‘조선 역사·문화’를 둘러싼 사회적, 지적 동향에 대해 학계의 심도 있는 연구가 진전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는 두 신문의 ‘조선 역사·문화’ 관련 기사를 그 내용에 따라 총 13개 분야로 분류하여 검토했다. 1930~1940년 《동아일보》의 상위 빈도 5개 ‘분야’는 ‘민속’(21.2%), ‘역사’(20.8%), ‘어학’(14.9%), ‘문학’(10.4%), ‘고적’(8.8%)로서 전체 선별 기사의 76.2%를 차지했고, 《조선일보》는 ‘음악’(24.0%), ‘민속’(20.0%), ‘역사’(15.2%), ‘어학’(13.4%), ‘문학’(10.0%) 순으로 전체 선별 기사의 82.6%에 달하여 두 신문 공히 13개 분야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했다기보다는 몇 개의 분야에 집중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 글에서는 다양한 성격의 텍스트로 구성된 신문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두 신문의 ‘조선 역사·문화’ 관련 기사를 ‘담론 기사’와 ‘스트레이트 기사’, 두 개의 층위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학술적, 지적 성격이 강한 ‘담론 기사’에 대해서는 기사의 ‘분야’별 분포와 기사를 작성한 ‘저자’, 그리고 기사에 등장하는 ‘인물’, ‘레퍼런스’ 등을 검토하여 신문에 나타난 식민지 ‘조선학’의 전반적인 지적 지형과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했다.

먼저 ‘담론 기사’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한 ‘분야’별 분포를 보면, 1930~1940년 두 신문의 상위 빈도 5개 분야가 공통적으로 ‘역사’, ‘어학’, ‘문학’, ‘기행’, ‘고적’이었으며, 이들 ‘분야’의 ‘담론 기사’ 합계가 두 신문 모두 전체 ‘담론 기사’의 80%를 상회했다. 1930~1940년 ‘담론 기사’의 분야별 분포를 1920년대의 그것과 비교해 보면, 《동아일보》는 1930~1940년에는 ‘고적’과 ‘기행’ 두 분야의 기사 비율이 감소하고, ‘역사’, ‘어학’, ‘문학’ 분야의 기사의 비율이 증가했다. 《조선일보》는 ‘고적’과 ‘기행’, ‘역사’ 분야의 기사 비율이 줄어들고, ‘어학’ 분야의 기사 비율이 대폭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1930~1940년 ‘담론 기사’의 상위 빈도 ‘저자’를 1920년대의 그것과 비교해 보면 저자의 구성에서 큰 변화가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동아일보》에서는 빈도 상위 20위 저자에서 정인보·이윤재 등 16명이, 《조선일보》에서는 홍기문·장지영 등 11명이 1920년대 상위 빈도 저자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두 신문이 공통적으로 1930~1940년에 들어 어학 분야 담론 기사의 수와 비율이 대폭 증가한 점을 볼 때, 이러한 저자 구성 변화의 핵심에는 이윤재·홍기문·장지영·방종현 등의 한국어 학자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담론 기사’의 인물명 출현 빈도를 살펴보면, 1930~1940년 두 신문의 최상위 인물명은 ‘조선고종’, ‘조선세종’, ‘단군’, ‘조선선조’, ‘이성계’로 동일했으며, 1920년대도 그러한 점에서 식민지 시기 두 신문의 ‘조

선 역사·문화’ 관련 ‘답론 기사’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다루어진 내용을 일정하게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상위 빈도의 조선 국왕 인물명을 볼 때 1930~1940년에 들어 ‘조선 후기’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1930~1940년 두 신문의 ‘답론 기사’에서 출현한 레퍼런스의 상위 빈도를 보면, 1920년대의 그것과 큰 차이를 나타내어 ‘지식 자원’의 활용 양상에 변화가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기』, 『한서』, 『삼국지』 등 이른바 ‘중국 정사’의 한국 고대사 관련 기록을 활용한 빈도가 높아졌으며, 『조선왕조실록』의 레퍼런스 빈도 또한 높아졌고, 『훈몽자회』, 『월인천강지곡』, 『두시언해』 등 고전 문학·어학에 관한 레퍼런스가 다수 상위 빈도를 나타내었다. 빈도 상위 인물명에서 고대사 인물명이 소수였음에도 고대사 관련 사료들이 레퍼런스 빈도의 상위에 다수 등장하는 것은 한국 고대사 관련 ‘답론 기사’에서 상대적으로 조밀하게 레퍼런스가 활용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스트레이트 기사’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1920~1940년 ‘조선 역사·문화’ 관련 전체 기사와 ‘답론 기사’의 빈도에서 나타난 세 차례 상대적 고조기의 양상과 다소 달랐다. 두 번째 상대적 고조기인 1930~1931년의 시기에 정점을 이루었다는 점은 유사하지만, 두 번째 상대적 고조기의 기사 수와 비율이 첫 번째와 세 번째의 고조기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 ‘스트레이트 기사’의 분야별 분포에서 ‘음악’ 분야와 함께 높은 비율을 보인 분야는 ‘민속’과 ‘어학’이었다. 먼저, ‘민속’ 분야의 경우, 1930~1940년의 기사 빈도를 1920년대와 비교해 보면, 1930년대에 들어서도 ‘씨름’이 여전히 주된 소재였지만 그 비율이 낮아지는 가운데 ‘윷놀이’, ‘그네뛰기’, ‘활쏘기’의 기사 비율이 높아졌다. ‘어학’ 분야의 경우, 1920년대에는 ‘야학’, 즉 주로 ‘비문해자’에 대한 한글 교습 활동을 소재로 하는 기사의 비율이 과반을 차지하여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으나, 1930~1940년에는 ‘야학’ 기사의

비율이 대폭 줄어드는 가운데 ‘한글강습’의 일부와 두 신문이 주도했던 ‘문자보급·브나로드 운동’에 관한 기사로 변화했다. 이와 함께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선어학회, 조선어학연구회 등 한글 연구 단체·개인, 즉 전문적인 한글 연구자들의 활동이 크게 활성화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두 신문의 적극적인 반응 속에서 그에 관한 기사의 빈도가 증가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동아일보》, 《조선일보》.

2. 논저

강범일, 「근대 한국학 텍스트의 개체명 주석 연구: 1920~1930년대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학』 48-1, 2025, 77~106쪽.

김바로, 「해의 디지털인문학 동향」, 『인문콘텐츠』 33, 2014, 229~254쪽.

김현주, 「『조선일보』에 나타나는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역사지식장: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98, 2022, 77~100쪽.

박경우, 「인문학 연구에서의 디지털 기술 활용 현황 및 적용 방향: 디지털 인문학 동향 분석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200, 2022, 137~179쪽.

반재유, 「1920년대 신문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문학담론 고찰: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문학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198, 2022, 101~128쪽.

심희찬, 「근대전환기 신문·잡지 역사 관련 기사 데이터베이스 검토: ‘한국사’ 서술의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43, 2020, 59~98쪽.

심희찬, 「1920년대 『동아일보』 조선사 관련 기사 데이터베이스 검토: 문화운동의 역설」, 『동방학지』 198, 2022, 39~75쪽.

이재연, 「디지털 시대의 인문학에서 디지털 인문학 시대로: 한국문학에서 본 디지털 인문학 연구」, 『역사학보』 240, 2018, 157~190쪽.

이재연·정유경, 「국문학 내 문학사회학과 멀리서 읽기: 새로운 검열 연구를 위한 길마중」, 『대동문화연구』 111, 2020, 295~337쪽.

이태훈·정용서·채관식(편), 『일제하 ‘조선 역사·문화’ 관련 기사 목록 1』, 서울: 선인, 2015.

정유경, 「디지털 인문학 분야의 국내외 연구 동향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7-2, 2020, 311~331쪽.

정은경, 「디지털 인문학 연구 동향 분석: Digital Hamanities 학술대회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5-1, 2021, 393~413쪽.

홍정완, 「신문으로 읽는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조선 역사·문화’: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조선 역사·문화’ 관련 텍스트 계량 분석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98, 2022, 1~37쪽.

국문초록

본 연구는 식민지 시기 조선인이 발행한 대표적인 신문으로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조선 역사·문화’ 관련 기사를 양적인 방법에 의해 분석한 것이다. 두 신문은 1920년대에 비해 1930~1940년에 ‘조선 역사·문화’에 관한 관심이 대체로 높아졌다. 1920~1940년 두 신문의 연도별 ‘조선 역사·문화’ 관련 기사의 양적인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1931년을 정점으로 하는 가운데 세 차례의 상대적 고조기를 찾아볼 수 있다. 그 첫 고조기는 1926~1927년이고, 두 번째 고조기는 1930~1931년이며, 세 번째 고조기는 1934~1935년이다. 1920년대 두 신문의 ‘조선 역사·문화’ 관련 ‘담론 기사’ 산출을 주도했던 저자 구성이 1930~1940년에 들어서 크게 변화했다. 두 신문이 공통적으로 1920년대에 비해 1930~1940년에 들어 어학 분야의 담론 기사와 비율이 대폭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변화의 핵심에는 이운재·홍기문·장지영·방중현 등 한국어 학자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두 신문의 ‘조선 역사·문화’ 관련 담론 기사의 인물명 출현 양상을 통해 1920년대에 비해 1930~1940년에 들어 ‘조선 후기’에 대한 관심이 증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투고일 2025. 7. 4.

심사일 2025. 8. 1.

게재 확정일 2025. 8. 26.

주제어(keywords) 동아일보(*Dong-A Ilbo*), 조선일보(*Chosun Ilbo*), 조선학(*Joseonhak*, Korean studies), 양적 분석(quantitative analysis), 디지털 인문학(digital humanities)

Abstract

Reading Colonial 'Joseonhak' (Korean studies) in 'Numbers':

A Quantitative Analysis of Texts on 'Korean History and Culture' in the
Dong-A Ilbo and *Chosun Ilbo*, 1920~1940

Hong, Jeongwan

Using a quantitative study design, this study analyzed articles on 'Korean history and culture' in *Dong-A Ilbo* and *Chosun Ilbo*, which were two representative newspapers published by Koreans during the colonial period. The two newspapers showed a general increase in the readership's interest in 'Korean history and culture' in the 1930s and the 1940s compared with the 1920s. The quantitative changes in the number of articles on 'Korean history and culture' by year between 1920 and 1940 revealed three relative peaks, with 1931 being the peak year. The first, second, and third peaks occurred in 1926~1927, 1930~1931, and 1934~1935, respectively. The composition of the 'authors' who led the production of 'discourse articles' related to 'Korean history and culture' in both newspapers in the 1920s significantly changed in the 1930s and the 1940s. Findings revealed that considering that the number and proportion of discourse articles in the field of 'Korean language' significantly increased from 1930~1940 compared with the 1920s in both the newspapers, linguists, such as Lee Yoon-jae, Hong Ki-moon, Jang Ji-young, and Bang Jong-hyun, were the main catalysts of this change. Furthermore, the appearance of the term 'persons' in the discourse articles on 'Korean history and culture' in both newspapers indicates that interest in 'late Joseon' increased in the 1930s and 1940s compared with the 1920s.